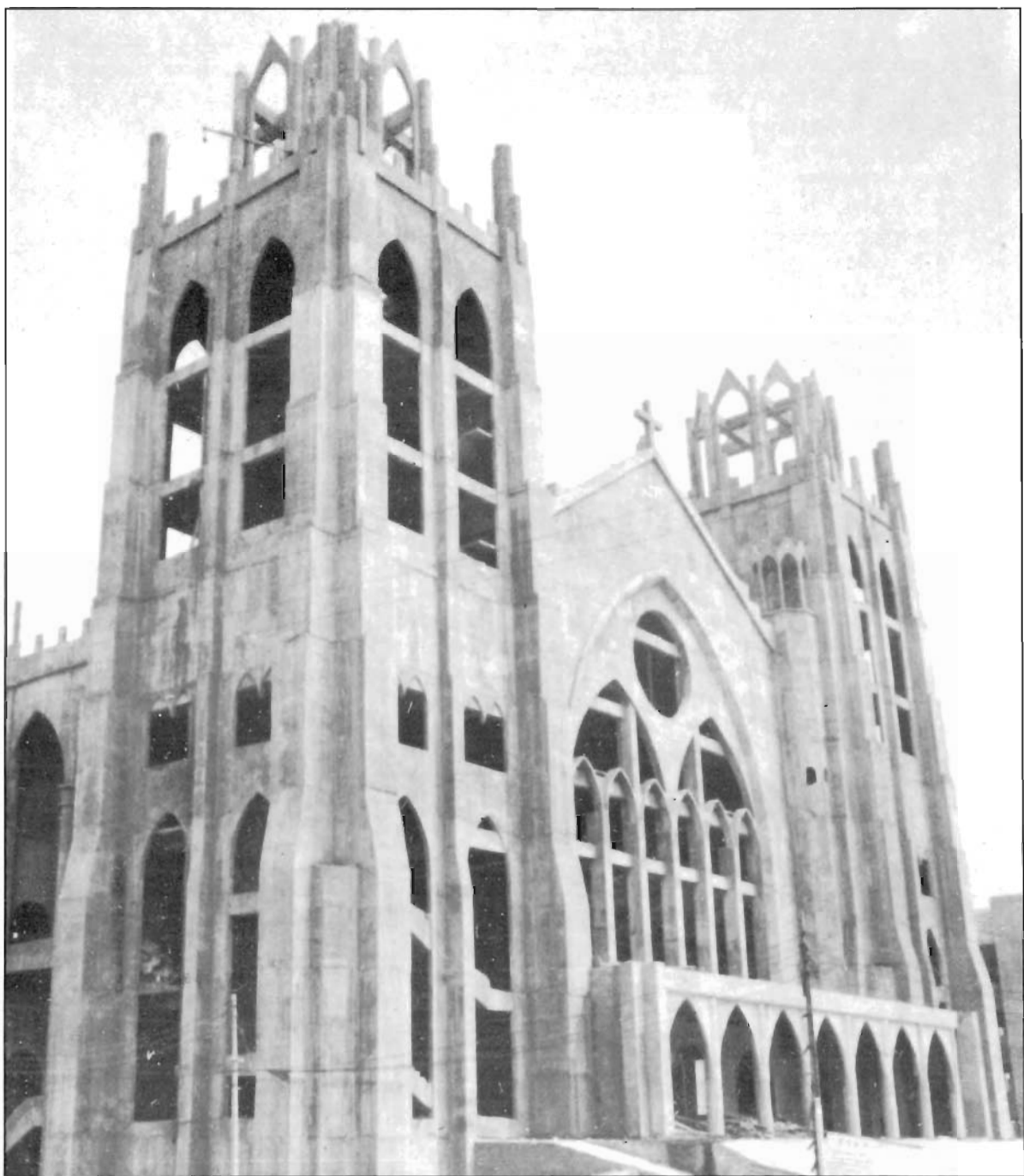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9** 월호



교회 설립 29주년

— 말씀으로 더욱 새로와지는 교회를 ! —

교회설립 29주년을 맞는다.

1953년 9월6일 오후2시30분 중구 인현동의 한 교우의 가정에서 18명이 참석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충현교회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의 국내의 상황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대였으며, 교회가 세상을 향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할 시기였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괴로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맞본지 8년, 6.25동란의 쓰라린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 53년, 전쟁의 폐허로 황무한 서울 목정, 오장동 지역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려는 신앙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로부터 29년인 오늘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중에 신도 1만명의 교세로 팽창, 지역 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인도하는 「충현」호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의 힘을 얻어 한국교회의 보수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보수신앙 파수에 전력을 다해 왔고 숭한 어려움과 모진 질곡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임으로 묵묵히 교회성장과 전도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험한 풍파를 노저어 왔다.

오늘의 충현이 되기까지엔 당회장을 위시한 당회원과 온 교우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시시때때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전도·교육·봉사·구제에 아낌없는 헌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내년 9월로 30주년을 맞게 될 우리 충현교회는 이미 기공되어 건축중인 논현동의 새예배당 헌당과 세계선교대회 개최의 큰 꿈을 안고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1.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세상사는 재미에 말씀(성경)을 외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말씀의 기초위에 기둥이 서야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즈음의 교계 형편은 신학적으로, 이단이 횡행하고 비진리가 상황을 침식해서 혼미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등한시하는 원초적 범죄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일보다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개인영화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으며,

격정과 동적인 행동자체가 믿음의 전부인양 착각해서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교회관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바른 교회관에 서서 흥미와 개인 인기위주의 그릇된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말씀실천운동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충현교회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절감한다.

2. 새 예배당을 예정대로 완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78년 5월25일 새 예배당 기공예배가 드려진 이후 현재 약33억의 경비가 소요된 1만2천여평의 철근 골조가 완성되었다.

예배당 건축은 우리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재정적 지원으로 진행되는 필연적 사업으로서 늦어도 내년 8월까지 새예배당 준공 감사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헌당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일」인 새예배당 건축은 우리 모든 교우가 더욱 기도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자세로 추진되어서 예정 날짜에 마무리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종합기획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많은 교인수와 방대한 구역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충현교회는 설립 당시의 소수인 교회행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대규모적인 교인양육·전도활동·해외선교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기구 혁신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백년 앞을 전망하는 충현교회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비, 인력수급의 선별, 재무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교회가 바라는 일관성있는 체제확립과 공동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기획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을 종합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분석·연구·검토하는 두뇌활동도 도입해서 명실공히 대교회로서의 면모를 세신할 때도 왔다고 본다.

이제 충현교회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재원확보에도 신경을 써야하며, 박진감있게 추진하는 인재양성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

교회가 새로와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29주년을 맞은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敎
民族福音化
世界宣敎
聖殿建築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수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0권 제 8 호 통권102호

1982년 9 월호 차례

- 권 두 언 / 교회설립29주년 손경수 · 2
□ 이달의 말씀 / 스테반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 김창인 · 4

□ 특집좌담회 · 새성전 입당을 앞둔 우리의 각오

참석자 : 김기정 · 김하진 · 남성호
손경수 · 유국남 · 이웅선 (가나다순)
사 회 : 조현명 6

-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 / 새성전 입당후의 심방 김원남 · 12
□ 새성전 소식 / 새성전건축 지상현장 13
□ 새예배당 이주를 위한 특별기획 /
새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뜻 손경수 · 14
□ 지상특강 / 교사의 역할 문정수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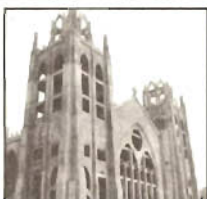
-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⑦ 직업관
·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옥한흠 · 22
□ 김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⑧
·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김창인 · 26
□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⑨
· 칼빈주의 교육관 김하진 · 28
□ 신학논단 ③ / 복음과 전도 조영길 · 30
□ 해외기고 / 기도의 올바른 이해 전순영 · 34

□ 특 별 대 담

- ◇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권금신 · 36

- 수양회소식
·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훈련 조준상 · 39
· 믿음으로 통일하여 건축하자 평복교회 김애경 · 41
· 자질향상 위한 음악훈련 차신득 · 42
□ 해외에서 온 편지 / 새막사에서 은혜 중 첫 예배 안명수 · 44
□ 물 맺 돌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5
□ 신간 안내 / 평신도 성경공부 김하진 · 29
□ 기관 소개 / 의의 땀기로 헌신하는 대학부 45
□ 교사의 난 / 아이들속에 감추어진 영적헌비밀 정인선 · 46
□ 찬송가감상 / 참 즐거운 노래를 김하진 · 47

- 선교사 · 선교지 소식 48 교계소식 50
이달의 교우동정 51 교회소식 52
7 월의 행사 54 편집후기 54



표지설명 / 제 1 차 골조공사를 끝내고 마침내 트리넨 새
성전의 웅장한 모습. 언제쯤이면 내외장공사를 마치고
입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성
도들의 뜨거운 참여 뿐이다. 새성전 2 차 공사에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새성전건축의 대단원의 막을 내
리고 우리 다 같이 입당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빈다.

□ 이달의 말씀

스데반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

〈행 7:54—60〉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첫 순교자 스데반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만을 책임지고 교회의 경제문제는 집사들에게 맡기려고 일곱 집사를 택하였는데 스데반은 그 일곱 중에 한 분입니다.

본래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였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읍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한 것은 물론, 교회 밖의 불신자에게 전도를 많이 하였읍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악한 무리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읍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을 망신시키려고 다섯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이(행 6:9) 예루살렘에 모여 변론을 했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망신을 당하고 말았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계획성 있는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퍼부었지만, 스데반은 성령님의 치혜로 대답하기 때문이었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스데반에게 패배를 당한 5지방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통이 터져올라 왔읍니다. "음, 우리가 또 망신을 당했어. 아예 스데반을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 그들은 무서운 흉계를 꾸밈읍니다.

스데반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응, 이제는 스데반이 손을 썩씩 비비고 용서해 달라고 빌게다. 그러다 안되면 이를 부드득 갈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발악할게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스데반을 보던 그들의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읍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교만이 꼭 찬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다. 권세가 있다. 지식이 많다. 기술이 능하다 하는 식으로 교만이 꼭 찬 얼굴이 있습니다.

● 아무 것도 없으면서 꺼덕거리는 거만한 얼굴이 있습니다.

● 추잡스러운 얼굴이 있습니다.

● 비루한 얼굴이 있습니다.

● 인격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인격자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얼굴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끝으로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1. 이중인격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여든 종교지도자들은 이중인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의로운 줄 알면서도 죽이려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스러우나 마음에는 악독한 살인자로 이중인격자의 얼굴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행 6:15)

2. 종장부의 얼굴이 있습니다.

돈 몇푼 받아먹고 악한 사람의 하수인이 되어 스데반이 의인인줄 알면서도 그를 죽이는 일에 거짓 증인을 서는 사람들의 얼굴은 찌푸린 종장부의 얼굴입니다.

3. 허수아비의 얼굴입니다.

얼마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만세”를 부르던 무리들이 이제는 악한 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하고 떠드는 그 무리들의 얼굴은 어떤가? 악한 자의 충동에 나무가지처럼 흔들리는 그들의 얼굴은 분명 허수아비의 얼굴입니다.

4.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이 있습니다.

1) 스데반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 ① 욕심이 없는 깨끗한 얼굴입니다.
- ②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얼굴입니다.
- ③ 낙심을 모르는 소망의 얼굴입니다.
- ④ 원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랑의 얼굴입니다.
- ⑤ 겸손히 순종하는 얼굴입니다.
- ⑥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얼굴입니다.

2)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 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②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 ③ 기도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 ④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면 불효하는 법이 없이 효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내 아들 딸을 위하여 축복해 주면 절길로 나갔던 아들 딸이 가슴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교사들이, 성가대원들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교우들을 대하면 교우들의 믿음, 소망, 사랑, 생명이 무럭무럭 자랄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주셨던 천사의 얼굴을 부족한 중에게 주옵시고, 원수 앞에서 겁없이 담대한 마음, 궤와 타협을 모르는 진실한 천사의 얼굴을 주옵소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이 얼마나 잘 지어질까!

“스데반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겸손히 복종할 줄 알고 원수를 위하여 눈물흘려 기도할 줄 아는 천사의 얼굴을 주옵소서. 이 얼굴을 가지고 살고, 이 얼굴을 가지고 일하고, 이 얼굴을 가지고 죽게 하옵소서.”

이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거룩한 교회

— 새성전 입당을 앞둔 우리의 각오 —

일시: 7월31일 오후5시

장소: 월간충현 편집실

교회설립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의 감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깊다고 하겠음니다. 특별히 새성전입당을 갈망하는 당회장 이하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힘입어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음니다.

이에 본지는 새성전입당을 앞둔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피력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중성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하고자 본 좌담회를 개최하였음니다. 새성전 완공의 그날을 위하여 온교회가 합심협력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될뿐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시켜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는 바임니다. (편집자 주)



◇ 참 석 자(가나다순)

김기정 장로(건축위원회 위원장)

손경수 집사(청년부 부감)

김하진 목사(성가부 지도)

유국남 강도사(주교 선교부 부지도)

남성호 목사(전도위원회 내지분과)

이응선 장로(재정위원회 위원장)

조현명 장로(출판국장·사회)

사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좌담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78년 5월 25일 기공예배를 드린 이후 오늘날까지 4년여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가지로 난관에 부딪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문제는 새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보고계십니까?

김기정: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성전 건축의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여년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새성전 건축이지만 특별히 새성전 입당을 앞에 놓고 이 시점에서 이와같은 좌담회를 마련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새성전 건축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온교회가 기도하며 추진해 온 공사는 제1차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갔고 제2차 공사인 내장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공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공사는 내부의 세밀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기에 배전의 계획과 설계, 치밀한 감독과 성의있는 시공이 요청되며 따라서 많은 공사비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온 교인들의 숨은 기도와 봉사가 있었지만 이제부터의 공사를 마치기까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인 각오를 가진 온 교인들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 김기정 장로

그동안도 온 교인들의 숨은 기도와 봉사가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적인 각오를 가진 온 교인들의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김하진: 새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온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불량만큼 건축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기도의 재물부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응선: 현시점에서 조속히 새성전을 완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안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로 집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을 받아, 모세를 중심으로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헌하여 가제물로 성

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총현의 성도들도 주안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자원은 심정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손경수: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경비 현금에 적극성을 띄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남성호: 선교1백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로서 우리교회가 새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한국교회사에 찬란한 장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로 복음을 역수출할 때가 되었고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리교회가 새성전을 건립하여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새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러면 새성전예배의 입당 및 헌당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응선: 입당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대지현금 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의 외형은 웅장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길은 밝지를 못합니다.

사실 모든 시설을 완전히 갖춘 후 입당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우선 예배드릴 처소만이라도 정돈한 후 주일마다 새성전에서 예배드릴로 온 성도가 새성전을 관심있게 관찰하고 위하여 기도드리고 감사함으로 물질바쳐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감을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헌당은 우리교회 창립30주년을 맞는 1983년9월에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손경수: 새성전예배의 입당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회당으로는 수용능력에 한계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유국남: 최대한 빨리 입당·헌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비좁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성전에서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소모하고 나면 진작해야 할 일은 뒷전에 밀리고, 도대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하진: 예, 새성전 입당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입당은 내년(83년) 봄쯤이면 좋겠습니다. 금년말에 입당하는 것은 공사 진행상의 문제도 있으나 난방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당은 시간이 좀 지난 후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정: 현 총무로 교회에서 논현동으로 옮기는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단순화

게 생각해도 최소한도 본당의 일부와 선교센터와 교육관이 완전하게 준공되어야 입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년 여름경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현당의 시기는 공사가 완전히 준공된 후에 가능하기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준공까지의 공정의 시일과 자금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장담하여 이야기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 그러니까 교회설립 30주년 기념예배는 새성전에 입당해서 드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 새성전에 입당하고 난뒤 새성전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김하진: 새성전은 국내외적인 공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내에서는 민족복음화의 선두에서 일해야 하겠으나, 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교회에 소속된 성도라는 제한된 '소수'에게만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초월해서는 세계선교 혹은 공산권선교가 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남성호: 이제 충현교회는 세계를 향한 세계 속의 교회가 되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보다 100배나 더 감당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장도, 양도 100배나 축복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응선: 새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새성전에 거는 기대는 누구나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유형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형의 교회라고 할 때, 문제는 성전의 규모로서 한국 제일의 교회가 될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전에 들어와 말씀에 접하고 말씀 지키며 성령충만, 은혜충만의 역사가 불길 같이 일어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구름떼같이 물려와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참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경수: 새성전에서는 전도, 교육, 해외선교, 봉사, 구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많은 결



◇ 새성전 전경

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유국남: 세계선교의 영광스런 사명은 한국교회와 민족의 축복일 뿐만아니라 이 일에 앞장 서는 우리 충현교회의 특별한 영광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충현교회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돌린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알려지되, 솔로몬의 실패는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사회: 지금까지 알려진 점에 비해서 새성전에 대해 좀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이응선: 새성전 건축의 보완점을 지적할만큼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다만 피상적으로 언급한다면 첫째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이 갖추어진 분반 공부 교실확보가 요구되며, 둘째로 성전의 크기에 비해, 성도의 교제를 위한 휴식과 대화의 공간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남성호: 당회장 목사님의 최초 계획대로 2 만평을 구입했다라면 다소나마 미래의 더 훌륭한 충현교회가 되었을텐데 앞으로라도 계속 교회터를 확장하여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시설, 교육시스템완비, 교역자 연구실 및 상담실 보완 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유국남: 매스컴을 총동원해야 하는 총력선교의 시대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전관 조명이 가능한 TV 중계 설비와 장비를 포함하는 음향, 조명시설이 갖춰져야 하겠으며, 주일날 어린이와 어른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휴식하고 몸을 놀릴 수 있는 넓은 초장과 운동장 및 공원설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배드린 성도들의 이동공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많은 투자가 들어감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감으로써 중박이나 착오에 의한 막대한 손실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김하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되어 있고



◇ 김하진 목사

새성전은 한국교회 뿐만아니라 세계선교 혹은 공산권선교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 이응선 장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와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참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관심이 있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교회는 일반 건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데서 그렇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그렇다고 하나, 역시 교회의 상징은 음악—찬송입니다. 교회라면 종이 울려야 하고 찬송이 울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내는 「오르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국교회에서는 건물을 중요시하고 기타 다른 부속물 등을 중요시하는데 외국에서는 오르간이 없으면 교회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르간이 없으면 겉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 새성전건축에 있어서도 차제에 오르간 구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냉난방시설이나, 음향기기시설계획 이전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읍니다. 이 문제를 관계 기관들 사이에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기정 : 새성전의 보완점은 세상의 모든 일이 완력은 없는 것이기에 새성전 건축이 아무리 치밀하고 섬세하다 해도 미비한 점은 있을 수 있고, 모든 경우와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성전 건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 보다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면을 더욱 잘 지적하리라 봅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고 지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 새성전과 부속건물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방도로 어떤 운영체제—교역자, 직원의 수용 및 재정운영방법, 각종 기재의 활용방안, 사무처리의 효율화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사관리 등—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국남 :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못된다고 봅니다. 다만 경영학과 행정학, 전산조직과 사무

기기의 현대화와 놀라운 발전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인위적이라기 보다 자연스러운 추이라는 것과 전문화에 의한 이러한 성과의 사용이 죄라거나 필요악이라거나 하는 애매한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이고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기정 : 기능의 효율화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각기 다른 일들이 많이 있기에 실무자 한두사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당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교회내에 새성전의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전체적인 관리, 부서간의 협조 등을 위한 전담기구가 조속히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목관 전경

이응선 : 새성전에서의 교회행정은 전문가적인 관리와 운영이 없이는 성전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조직과 기구의 효율화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낭비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각 분야별로 운영체제와 관리방안을 여기서 상세히 연



◇ 유국남 김도사

총력신교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자유롭게 휴식하고 몸을 놀릴 수 있는 넓은 공간 설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다만 이 일을 위해 전체적인 방향 만을 제시한다면,

① 각분야별로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② 전문화된 각분야의 방향이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부합토록 종합하며

③ 종횡을 유기적으로 연관 맺도록 하는 일체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첫 단계는,

① 필요성의 구체화

② 전반적인 상황조사

③ 적절한 인력과 재정투자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손경수 집사

전도 교육 해외 선교 봉사 구체화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회: 우리교회의 현재 목표는 새성전 건축을 비롯한 5대목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단계 차원을 높여 새성전 입당 후 우리교회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교회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어떻게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호: 5대목표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세계교회를 향한 발돋움을 조직적인 계획으로 밀어붙여야 하겠습니다. 국내 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되 국외로는 1백명을 파송하여 복음수출하는 교회로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유국남: 2천년대를 향한 충현의 웅지는 충현의 5대목표 자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한 최선의 효과적인 헌신만이 요청될 뿐입니다. 충현교회의 영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면서 다른 교회와 협력해 나가면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목회와 생활에 확고한 기초를 둔 살아있는 신학자 내지 신학적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일군을 키워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응선: 충현교회는 설립초기 부터 교회의 항구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전도에 주력하여 왔고 10여년전부터는 해외선교에도 힘을 써왔고 북한선교활동

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교회의 활동과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내적으로는 전성도가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유기체로서의 각 지체들이 온전한 연합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교인의 철저한 성경말씀 교육과 인격의 변화를 겨냥한 지속적인 생활훈련을 통하여 급격히 증가할 양적 팽창(부흥)에 따른 질적인 향상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지도자들(각 분야에서의)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천국일군양성의 목표를 좀더 구체적이고 집약적인 방향으로 보완, 보다 많은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공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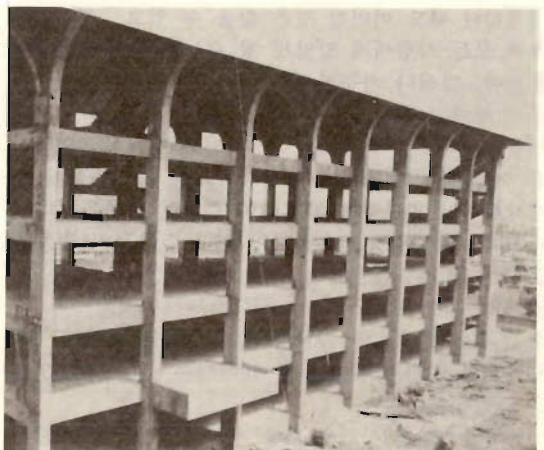
사회: 한국교회사적 견지에서 본 "충현"의 위치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하진: 충현교회는 한국교회사에 영원히 남을 생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 목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신구약 성경에 기초한 칼빈주의적인 사상에서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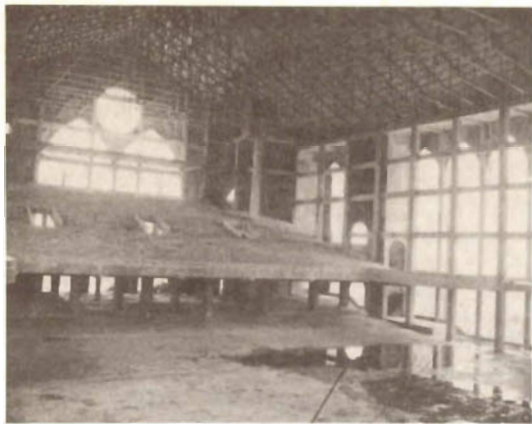
이응선: 앞으로 충현교회가 한국교회사적인 견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혼탁해가는 교계와 신학계에 복음적 개혁주의 신앙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둘째, 교회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적극 육성하는 일이며,

세째, 새성전으로 이전한 후, 일반적으로 맘모스교회가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 비교회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협동목회체제와 교회 전체활동을 통해 참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범된 교회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선교센터



◇ 새성전 내부현장

유국남 : 순교자적 신앙전통과 충성심을 갖춘 목회자와 목회방향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없이 순종하며 모든 일에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충현교회는 곧 빌라델비아 교회의 표상입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역사적인 존재의의를 살려서, 남들이 소홀히 하는 기초교육의 기반형성과 버림받고 소외된 영혼구원을 위해 힘써온 충현의 자세는 한국교회의 성장방향에 새롭고 신선한 목회철학을 공급하는 원천이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성장과 발전의 진정한 기반이 되고, 이와같은 축복과 소망을 갖고도 마음이 연약해지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충현교회의 지도역량이 발휘되는 곳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큰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 : 새성전 완공후 현 교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응선 : 현재의 예배당은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정 : 현 대지 위에 수익성 높은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서 수입되는 열매로 해외선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당회장 목사님의 복안입니다.

손경수 : 충현교회 지교회로 사용하던가 그렇지 않



◇ 남성호 목사

국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되 국외로는 1백명을 파송하여 복음수출하는 교회로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으면 복음 선교를 위한 시설을 갖춘 방송국이나 사회봉사 센터 등 다목적적인 활용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 과거에 우리교회가 받아누린 은혜, 그리고 현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교회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아야만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은혜를 들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김하진 : 과거로 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들을 세워 역사하셨다는 것은 충현교회가 받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리라 믿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국가, 사회 각기관에서 일할 충성스러운 일군들을 우리 충현교회에서 많이 양성하여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손경수 :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내일에도 계속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같이 해야만 우리교회는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조현명 정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복음사업에 축복하셔서 놀라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응선 :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수없이 많으나 특히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사실과,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교회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은혜도, 역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은 물론 진리의 파수와 영력있고 실력있는 주님의 종을 통해 계속 충현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할 것입니다.

사회 :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허심탄회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교회의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전건축은 물론, 앞으로의 모든복음사업에 축복하셔서 놀라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성전 입당후의 심방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심방위원회 주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7월말 현재 우리교회 총 교인수는 10,266명이며 총세대수는 4,473세대입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우리교회 한 가족당 2명이 조금 넘는 숫자만이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당 5~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터인데도 이와 같이 적은 숫자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많은 이유중에 제일 큰 원인은 교회당에 교인들이 앉을 자리가 적고 혼잡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조금 늦게 가게되면 다음 예배시간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더욱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은 어린이예배를 위해 몇시간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부 주일학교의 예배와 대예배에 나온 교인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교인 숫자는 대폭 증가되어 일약 부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새성전에서 많은 교인을 한꺼번에 수용한다고 생각할 때, 세대당 3명이 예배에 출석하면 13,419명, 또 세대당 4명이 출석할 경우 17,89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니, 얼마 지나지 않아 20,000명의 교인이 모이게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더욱이 세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년학생들을 합하면 놀라운 숫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교회는 매달 37세대가 불어나고 있는데, 각 세대 4명이 출석한다고 볼 때 148명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성전에 가서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만이 훨씬 넘는 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맘모스교회가 형성될 때, 우리교회의 심방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것입니까? 참으로 일대 혁신을 해야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성전 입당을 앞에 두고 본교회 심방 문제는,

첫째로 구역원들의 치밀하고 민활한 활동이 필요 합니다. 주로 심방은 구역 요원들을 교육 훈련시켜 형식 돌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둘째는 심방팀이 교회에 항상 상주하여 요청 심방에 응하는 일입니다. 심방은 대심방(정기심방) 유고, 등록심방 외에는 요청에 의해서 심방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세째는 대심방 또는 유고, 등록 심방 등 모든 심방을 심방부 남녀 교역자들이 사무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네째는 모든 심방은 시간을 절약해야 합니다. 대심방의 경우도 지구 담당 목사가 수십 세대를 돌아야 하는 경우 구역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축복받는 일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유고 심방, 등록심방의 경우도 교역자가 기도해 주는 것으로 심방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방부 남녀 교역자 14명이 현재는 남녀가 한팀이 되어 대심방 유고심방, 등록심방, 이사심방 등 모든 심방을 하고 있는데 교인수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 둘씩 한조가 되어 활동하는 형식보다 각 교역자가 따로 따로 활동하는 것이 능률적이며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남녀 교역자가 같이 심방을 하고 그 외에는 남녀 교역자가 할 일을 분담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며 효과적일 줄 압니다.

여섯째 교역자들이 지구를 담당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매년 한 지구씩 담당하여 일하고, 다음 해 다른 지구로 옮기는데 이런 경우 7년이 걸려야 온 교인 세대를 다다르게 된다는 결론이고 보니 7년 동안 새 교인이 많이 생기고 특히 새성전에서 수 많은 교인을 교역자들이 다 알게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특히 심방하는 교역자가 교인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는 일과 구역을 잘 조종하는 일, 또 구역 일군을 세우며 교회의 새 제직을 추천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교역자가 한 지구를 적어도 2년내지 3년 또는 영구히 책임지고 돌보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심방에 대한 변화는 우리 충현교회의 앞날에 불가피한 일입니다. 세밀한 계획과 치밀한 조직하에 심방은 변화되어야 하고 특별히 구역 운영도 좀더 변화있는 운영을 해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부흥된 맘모스 교회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새성전이 완공되어 입당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영혼이 새성전을 통해 구원받는 환희의 날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날 충현의 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축복이 속히 오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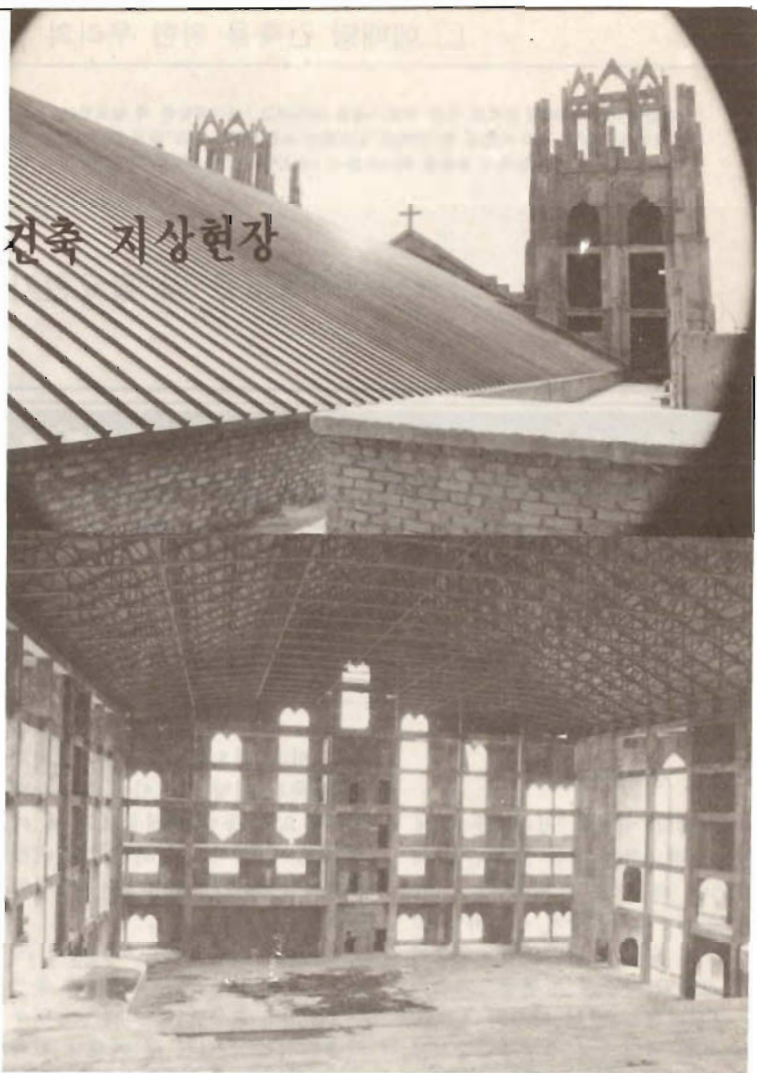
새성전 건축 지상현장

이번호 부터는 새성전 건축의 현황을 상세하게 살펴봄으로 여러분들이 새성전 건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식에 갖게 하기 위하여 새성전 건축현장을 충현지 지상(誌上)으로 옮겨 왔습니다.

지난 80년 4월 8일 착공예배를 드린지 2년5개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목표인 새성전 건축은 이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새성전을 하루속히 완공하여 하나님께 헌당해야 할 사명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성전 건축현장의 인부가 됩시다. 벽돌 하나라도 나르고 흙 한 삽이라도 파내는 심정으로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아끼지 않고 물질적 참여에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새성전 완공의 날을 허락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들의 노고에 한량없이 크신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란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공진과 건축일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새성전 건축현장에 더욱 접근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나의 몫을 다 할 수 있는 충성된 충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일지

착공예배 : 80년4월8일

상량예배 : 81년11월12일

제1차공사 완료 : 82년8월15일

◇작업현황(82년8월15일 현재)

1. 제1차 골조공사 완료(지붕 공사 포함)
2. 정우개탈 기술진 철수
3. 제2차 내장, 외벽공사 준비
4. 금년 가을부터는 각종 철야기도회 및 군소집회가 가능토록 준비 예정.

◇제1차 공사 소요자재(8월 15일 현재)

세멘트 : 153,900포대

레미콘 : 4,192.5^m = 약700트럭(8t)

자갈 : 15,886^m = 2,647트럭

모래 : 11,567^m = 1,928트럭

철근 : 2,570^m 톤

철골 : 300톤

동판 : 32톤(지붕공사)

시멘트벽돌 : 411,000배

현월(기능공) : 68,167명

◇제2차 공사 개요

1. 적업내지 업자선정
2. 화벽·내장공사
3. 냉난방, 위생, 소방공사
4. 조명, 음향 기술공사

「월간충현」은 새예배당 건축에 따른 특별기획을 마련하고 「새예배당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지면을 마련했다. 편집회의의 결정에 따라 마련된 동 기획은 앞으로의 충현교회가 나갈 길을 제시하고 실천의 구체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기적과 같은 새예배당 건축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1만교우가 한목소리로 기도하며 딸과 정성의 헌신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새예배당은 왜 필요한가?

“새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뜻”

손 경 수 집사
〈월간충현편집위원·청년부부감〉

● 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운데 세워진 충현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내년(83년 9월)으로 맞게 된다.

그동안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장족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충현교회는 설립 당시의 천막교회로부터 몇차례의 성전증축공사로 모여드는 성도들을 맞이하긴 했지만 이제 급성장한 신도들의 교세팽창으로 현 위치의 좁은 예배당으로는 더 수용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케 되었다.

부득이 지금부터 12년전인 1970년 강남구 논현동에 9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새 예배당 건축의 계획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부 행정당국의 무성의 및 악조건으로 인해 대지구입 당시에 예배당건축을 실행치 못하고, 대지구입 10년이 지난80년 2월 14일에 관계당국의 건축허가가 나왔다. 온 교우들이 10년만의 눈물의 기도, 땀흘리는 정성이 우리 주님께 상달되어 건축할 수 있는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성도들의 적극적인 예배당 건축의 열망, 또 이에 따른 재정후원으로 동양 최대규모의 새 예배당 짓기 시작하여 81년 11월예상량에배를 드리게 되는 큰 역사가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간들의 조그마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다. 그동안 일부 계층에서는 우리의 새 예배당 건축을 놓고 「왜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하느냐?」 「그 엄청난 예배당 건축 금액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웃봉사와 구제에 쓰지 않고 개체 교회당 짓는데에 이렇게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동등의 이야기가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새 예배당을 짓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인, 또는 「하나님의 일」인 예배당 건축이어서 무조건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세상사람들의 근시안적인 신랄한 비판에 무감각했었다.

오직 새 예배당이 하루속히 완공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소요되

는 공사비 염출에 1만교우들이 솔선수범의 협력체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1백억이 넘게 공사비가 소요되는 충현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있어서 다음의 몇가지 목적과 그 타당성을 제시하므로 우리 모두가 바른 이해와 관점으로 새예배당 건축에 임했으면 한다.

● 성경적 측면에서

구약성경 학개서 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 있다.

다리오왕 이년 유월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학개」에게 나타났다. 주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학개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건축을 호소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아직 성전건축의 시기가 아님을 내세워 거부했으나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피볼찌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

으며, 먹을찌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찌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에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군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외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깊은데 있음을 시사한 말씀이다.

주의 전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인간들의 의식주 생활은 물론, 주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학개서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오늘의 우리 총현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는 순수하고도 겸손한 순종심의 발로가 세에 배당 건축의 웅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되새겨 보면서 순종의 결과를 생각해 본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했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광야에서 장시간 임시 유랑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척 엄청난 명령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명령을 받은 온 회중은 즉시 물러가서 남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출35:21) "마음에 원하는 남노"(출35:22)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노"(출35:39)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출35:29)바쳤다.

너무 많이 바쳐 성전짓고 남게되어 모세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다.

좁은 공간의 총현교회 본당이 현재처럼 구름떼처럼 물려오는 신자



들에게 버림받아 다시 이곳을 찾지 않으려는 마음을 심어 준다면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밖에 되지 못한다.

모두가 한가지로 은혜받는 큰 공간의 예배처소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의 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업수이 여기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개 선지자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 교회사적 측면에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지도 어언 1세기에 가까와 오고 있다. 근 백년동안 한국교회는 물랑면으로 크게 성장했고, 세계의 예루살렘이 「한국」인 것처럼 소문이 나있을 정도이다.

축복받은 백성이다.

교회성장에 따라 이 땅에는 많은 크고 작은 교회당이 곳곳에 세워졌다. 천막교회, 가정교회, 전세임대교회, 단독주택교회, 일반교회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여러 형태의 교회당 건물이 곳곳에 세워졌고,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때 유행어가 있었는데 "났다하면 「불」이었고, 섰다 하면 「교회당」"이었다.

이만치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으

로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고, 선교 1세기동안 약 8백만명의 종교인구를 포용하게 되었다.

이젠 초창기의 한국교회 교인 숫자에서 대형화된 교인증가에 따른 교회당 건축이 시급하게 되었다.

2백명교인 목회이상(理想)이, 이젠 천대, 만대, 십만대로 그 상황이 달라져 갔으며, 교인분포나 성향, 조직력, 행정력이 극대화 되었다.

진리는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았지만, 신자의 생활과 의식수준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초막집, 기와집, 연립주택, 아파트, 빌딩주택 등 호화주택등으로 변모되었으며, 여름과 겨울을 넘지 않게, 춥지않게 지낼 수 있도록 냉온방시설로 시설이 바뀌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의식화가 팽창해 졌고, 선교, 전도·교육·봉사의욕이 재래식 방법에서 탈피되어 새로운 형태의 현대식 방향으로 물결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운동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으며 성령운동의 과열현상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가졌던 4차례의 담모스 전도집회는 한국선교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점철시켰으며, 수십만이 예수믿고 회개하는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기에 우리 총현교회도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복음화합의

연합활동이 한국뿐 아니라 아세아. 세계에까지 미치게 되어 「충현」의 이름이 널리 PR되었으며, 한국교회회사 1백년동안, 단일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새 예배당이 건축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의 후손이 충현교회당 완성 이후의 파란만장한 뒷배기를 추억처럼 나열할 날도 멀지 않았다.

● 목회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며 일하며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현교회는 7천명 이상(본당 좌석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란 충현교회의 영원한 표어처럼, 주님의 은총에 감동 감화 받아 감사생활에 앞장서는 충현 교회가 되도록 목회의 기본계획을 실천해 되는 것이다.

방대한 구역조직을 효율성있게 관리하고, 성경공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비례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신자 개개인의 상담을 맡기 위해서는 체계있는 목회윤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심방, 경조, 사랑의 위로, 축하, 불우이웃의 구제, 혹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은 대교회일수록 분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일을 진행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동역자가 많을 수록 예정한 계획보다 알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많은 수를 1개인의 목회자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으나, 작으면 작은 규모로, 크면 큰 규모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처럼, 큰 교회 목회도 이에 준한 목회 기본계획이 있다고 본다.

● 선교적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12개국에 1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해외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초창기 선교사 파송시엔 교인 3천명에 불과했었지만 선교사 파송이후 1만명 이상의 신도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선교열이 높아지고, 점차 선교활동 영역도 넓어져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선교능력을 증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분당건축과 함께 선교관이 함께 건축되고 있다.

앞으로 1백명이상의 선교사를 파송시키려는 충현교회로서는, 선교에 대한 사명의식 고취는 물론 훌륭한 선교사 후보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선교사훈련 교육기관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 교회의 선교센터 건축으로 다소나마 선교사 양성, 인재확보, 교육훈련의 숨통이 터질 것같은 전망을 가져본다.

혹자는 개교회 자체가 선교사 훈련을 시킬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선교 회관을 위탁교육장소로 제공할 수도 있고, 시설의 현대화를 최대한 활용 우수한 교수진을 기용, 특별 선교 교육을 교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본당이나, 선교 교육관에 같이 병설될 5개국어 동시 통역실은 능히 이것을 밑바침해 주는 시설이다.

우리 교회는 해외선교뿐 아니라, 북한 선교에도 정열을 다 쏟고 있다. 4년전에 김창인목사를 중심으로 북한선교활동은 이제 많은 교인과 목회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북한선교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공산권선교에 문이 열려져 만주·중공에 교회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으며, 성경·찬성이 밀반출

되어 지하교회 교인들이 다시 말씀을 읽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기뻐하며 울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일정책은 앞으로 가로막혔던 38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게 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을 할 날도 멀지 않았다. 통일속원은 꼭 이루어질 것이며, 기독교 교리와 신앙으로 무장된 진도특공대가 눈부신 활동을 할 날도 멀지 않았다.

북한 선교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일부 교계인사들도 이제 전보다 의식구조가 달라져가고 있다.

남한에 있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의 상봉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취될 날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북한선교가 새생전 건축과 함께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 교육적 측면에서

비좁은 공간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육위원회 산하16부 주일학교 교육이다.

세상의 콩나물 교실보다 더한 좁은 공간에서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천명 이상이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집회시설이 한정되어 시간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일 하루는 주일학교 시간차 교육으로 인해 한 시도 쉴틈이 없으며, 부득이 평일오전, 오후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 영아부 교육도 무려 5번씩의 집회를 갖고, 유치부도 2번의 집회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교육집회를 위해 시간을 기다리는 타부서주교생의 지루한 기다림 행렬은 우리 충현교회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능히 필설로 표현치 못할 극한 집회장소의 단면을 현장에 와서 목격해야 이해가 갈 것이다. 교회의 부흥성장은 2세들의 주교교육이 절대적인 만큼, 훌륭한 교육관시설의 확

충, 인재(교사)의 보강, 교육 기제(시청각 교육용 포함)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새예배당 건축의 대형화는 우리교회로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 봉사활동과 장소협소의 현실적 측면에서

충현교회는 지난3월 첫주부터 장소 협소로 인해 부득이 5부 예배를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녁예배가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환원되었고,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4번이상의 반복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새예배당을 빨리 완공 못하면 피곤한 집회가 여러번 또 있게 될는지 모른다. 교인들에게는 1번의 집회이지만 목회자에게는 여러번의 집회를 갖게 되므로 오는 육신적 피로가 겹치게 된다. 목회자도 인간인 이상, 쉴 때 쉬어야 하고, 사색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필요하다. 주일 대예배시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본당 협소로 심지어는 강대상 위까지 올라가 대만원을 이루고 있고, 통로에도 보조의자를 놓아 앉는 바람에 집회 끝나고, 다음 집회시간 교체시에는 인산인해로 교회가 떠들석하게 된다. 처음 충현교회에 오는 교인들은 많은 교인들의 교체행렬을 보고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다가 성도간의 코이노니아가 결여되는 단점이 생기게 되었다. 시간차 집회로 인해 각기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관계로 같은 충현교회 교인이면서도 이름조차, 얼굴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한자리에 모여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좋은 사람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또한 충현교회는 교회 큰 것에 대한 자만에 빠져 이웃봉사와 구제에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오해를 갖는 이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2·3부가 바뀐 때의 교회주변모습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예배당 건축 관제로 전반적인 건축 재정은 하고 있지만, 전도와, 선교, 교육, 봉사, 구제엔 기본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1년 총 예산의 65%가 전도·교육·선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말은 기본 사명을 완수하면서 새예배당을 짓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다.

● 글을 마치면서

제한된 지면에 새예배당건축의 구체적 필요성을 논거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 「새예배당 건축」은 인간들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못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자기 재위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하

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넘어간 교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받아 들인다.

하나님의 일인신 「하나님의 성전」이 1백억원 아니라, 1천억원을 들인다고 해서 누가 탓하라?

피조물인 우리들은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대로 순교적 신앙으로 봉사와 헌신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오실 그 때까지 충현예배당은 지성 교회에서 튼튼하게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홍기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어느 신학교에서 학기말 시험 중에「어떤 사람이 새 생명을 받았다면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정답을 쓴 학생은 극소수였습니다. 정답은 「사랑」이지요.

이처럼 쉬운 문제에 답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받은 교육에「주입식」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촛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숙의 문제

먼저 본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성숙, 곧 성장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장한 교회, 성장하지 못한 교회, 성숙한 교인과 미성숙한 교인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사랑이 없고 시기·분쟁이 있을 때 미성숙이라고 합니다

소위 정통 보수인데도 사랑이 없었던 교회를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교회의 경우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속해서 보면 사랑을 빼고는 다 있었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삼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처럼 미성숙한 교회의 다른 면에 고린도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분열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이 대

단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어린 것먹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는 말씀에서 아직도 시기과 분쟁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성장기준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시기 분쟁이 많은 교회, 교단은 어린이 수준입니다. 이것의 정반대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장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2. 보상정신을 가지고 일할 때 미성숙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부자인 줄을 알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말이 떨어지

자마자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읍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정신입니다.

이런 보상정신에 대한 교훈으로 마태복음 20장을 주신 줄로 압니다.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인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에, 6시에, 9시, 11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주인이 각 일꾼에게 품삯을 계산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와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이에 주인의 대답은 “약속한대로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했는데 이것을 약하게 보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보상정신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대한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어떤 보상을 받을 줄 알고 일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후에 쓴 베드로서신서를 보면 이런 보상정신이 없습니다. 성숙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신앙(新福信仰)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것이 바로 보상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이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켜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이것이 복입니다. 이처럼 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데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보상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성장도를 측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보상정신에 따라 움직이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사랑에 이끌

리어 하느냐가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미성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독교인이 성숙한 기독교인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사물을 보는데 결만 보는 사람이 있고 속까지 들여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령과 학문과 신앙경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봉사경력과 경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측정할 때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하느냐가 측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강의식 교육의 문제

이제 교육은 강의식 교육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가르친다고 할 때 강의식 방법으로는 사랑을 가르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머리카락으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사랑을 가르쳐 주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한 서로간의 사랑과 사랑에서 오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칠 때 알 수 있는데 자기 마음 속을 털어놓지 않고 말로 자꾸 진리를 전달할 때 얼마나 사랑을 알 수 있겠읍니까,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사랑을 얼마나 느껴보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에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존 케스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진리는 명제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관계적으로 전달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교

육은 여전히 명제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땅에 보냈고 예수님은 또한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가르쳤읍니다. 또한 사도들도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가령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읍니까, 대부분 복음을 통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친히 전인격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안다」했을 때 「안다」라는 의미는 이름이나 그저 알고 외적인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신상에 관해서 잘알았고, 느낌, 기분까지도 잘 알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신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지요. 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두 데나리온, 즉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이를 품삯을 들여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또한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 또한 영적인 면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고도 사랑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이라기보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형편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학교 학생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벽돌장 찍어내듯이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콩나물 자라듯이 영적 체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평생을 두

다. 교회가 제도화되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됩니다.

○교사의 역할

1. 사이몬의 교수방법

미국의 마사추세츠 대학의 시드니 사이몬이라는 교수가 교수의 방법을 훈계조, 방임주의, 모범, 가치명료화의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 훈계조 교육

어떻습니까, 심은대로 거두었을까요?

2) 방임주의식 교육

이것은 피교육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3)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분의 1 정도는 강의를 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전달은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보아야 가치관이 내재화되는데 강의실에서 듣기만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4) 가치명료화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7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① 자유로운 선택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로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② 두개 이상에서의 선택

2개 이상의 것을 제시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③ 심사숙고한 후의 선택

자녀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식자가 되기 쉽습니다.

④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것은 귀중히 여김

⑤ 확인

⑥ 선택에 따라 행동

⑦ 반복해서 하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분깃의 재산을 받아 가는데 한 국가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탕자는 재산을 받아 가지고 다



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양의 성장보다 질에 관한 성장의 양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육에 대한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숫적 증가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단과 목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16절에 보면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체로서의 몸은 생각저 않고 숫적 증가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단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을 목표로 삼을 때 교회는 제도화되는 것입니

다. 교회가 제도화되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됩니다.

훈계조는 어른의 가치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터득하도록 강조하는 것인데 이처럼 강의식, 훈계식이 주가 되다 보면 이론과 실재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원화가 됩니다. 말은 잘하는데 생활은 그 말과 또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의 대부분이 이런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써버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품군으로 써달라고 하려고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이 성장할 기회였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2. 교사의 영향력

어느 책에서 보니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부모나 목사를 든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친구, 먼친척, 조부모, 이웃사람, 주교교사등을 들었습니다. 왜 이들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나 직업이나 체형이나 등이 자신보다 훨씬 월등한데 대등한 관계에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이전에 학생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훈계조로 하던 것에서 친구로 역할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를 보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님과 교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실패담을 하게 되면 꼭 친근감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때 교인들이 목사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잠시 와서 학생하고 한두 시간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끝나면 동일시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지식이나 통찰력등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담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시키고 잘 들어 주기만해도 문제가 반이상 해결된다고 합니다. 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의 가치와 위엄을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3) 가면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룹으로 모여 성경공부할 때 우리가 우리와 가면을 다 벗어 버리고 솔직하게 나오면 성장하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장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속에 있는 실수와 약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4) 계속적으로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옆에 놓고 계속적으로 해를 받으시면서도 그를 용납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살기 때문에 부부간에 있어서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양보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용납하면 내가 변화됨에 따라 상대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가롯 유다를 용납했습니다. 지도자라면 이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5)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을 믿습니다. 불신자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3. 교사의 역할

1) 친구의 역할입니다

2) 대화를 촉진시키고 터주는 역할입니다

복음은 잘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잘알아서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촉진시키고 터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3) 재단사가 되어야 합니다

공과 하나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마다 문제가 다르고 필요가 다릅니다. 공과를 그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응용해서 맞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4)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평생 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성장했습니다. 교사이지만 언제나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아동발달심리학, 학습이론, 교수이론등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물론이지요. 이렇게 할 때 인격이 성장하면서 변화가 있게 됩니다.

5) 정직과 자유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이 없으면 성장이 없고, 사랑의 풍토 가운데서만 신앙은 자랍니다.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마는 11세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11세이상 부터는 친구따라 강남가는 나이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떠나 자기 또래의 친구들한테 또는 다른 성인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강의식만 가지고는 얼마나 교육에 무리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5월**

〈강연초 문책기자〉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로서의 직업—

옥 한 흙 목사

(사람의 교회 시무)

직업—노동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사람에게 가만히 놀도록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동산을 다스리고 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일한다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놀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땀흘리고, 수고하는 일은 마치 죄때문에 온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죄가 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일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게 일을 해야되는 운명을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 뿐이지 죄가 일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일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마에서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이 힘들게 되고, 노동이 괴롭게 느껴지고, 또 권태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리 까닭에,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의 명령인데, 이 힘든 노동을 피하려고 하는 근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워주신 운명을 인간이 스

스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과격 한 말로 저주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결과,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일을 싫어하고 땀을 흘리기 싫어하는 이것이 인간을 영적으로 더 깊이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잠자기 좋아한다는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정욕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정욕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워주신 땀흘려 노동하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데서 인간의 비극과 또 영적인 타락이 많이 유래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안식일의 참 의의가 무엇인지 압니까? ‘옛새동안 힘써 네 모든 일

을 하라’ 이 옛새동안 일하는 배경이 없이는 안식일에 쉰다는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거룩합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줌니까? 그와같이 축복과 거룩을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옛새동안 힘써 일하였다는데 있습니다. 만약에, 옛새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자에게 안식일의 축복과 의미가 과연 어느정도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을 경시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축복도 경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은 성도에게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아시지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란 유대인들은 노동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일하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개 어디에 가서도 잘 삽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하는데 있어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노동을 천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노동하는 것을 얼마나 천시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이방 국가들은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고, 신분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노동에 관한 뜻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갖는 타락된 정신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와같은 정신 상태를 많이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일에 대한 신성한 성경적 의미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도 일하기를 싫어하고, 일을 피하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땀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직업의 의의

그러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직업이란 「자기의 생활 수단으로 선택한 구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라일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배의 선원들이 내려와서 물은 첫번째 질문이 “네 생업이 무엇이나” 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나를 거의 얘기할 수 있을만큼 이 직업과 그 사람의 됴됨은 중요한 함수관계를 갖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성경적으로 볼때 귀천이 전혀 없습니다. 귀한 직업도 없고, 천한 직업도 없습니다. 누구나 분명한 소명을 받아서 확신을 갖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그것은 귀한 직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이면 귀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대단한 생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직업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 본다면, 첫째는 생활 수단입니다. 둘째는 사회 참여의 수단입니다. 세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회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

기 위한 수단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적으로 어느정도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 좀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자기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

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희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여건입니다. 죄가 있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죄를 고백할 것, 부지런히 분명히 기도할 것, 성경을



니다.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생활수단으로 직업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바른 직업을 선택하고 일생을 보람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가 볼때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분명히 알아서 확신하

예민하게 살필 것, 이렇게 해서 경건생활이 제대로 유지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와같은 심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만이 우리에게 전달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다 음에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담의 유익

그러므로 경건생활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존경할만한 분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잘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은 곧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간절히 하고 싶습니까? 동기만 순수하면 하고 싶은 소원은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하십시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침체되고 혼란에 빠져있고 몸이 아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때 내리는 판단은 신빙성이 약합니다.

우리는 흔히 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고 나오기를 잘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처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면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야만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을 내 자신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한 사람에게 건전한 선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 분명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결단하면 뒤돌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맥킨토쉬의 실예

예를 하나 들지요. 10여년 전에 무디만슬리라고 하는 신앙 잡지를 본 일이 있습니다. 필립스 맥킨토쉬라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직업을 택해야 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기도하여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려고 무척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하루 저녁 소위 서원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교회에 참석해서 2층 제일 뒷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단판을 지우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어떤 기회든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길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내가 분명히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인 줄 알고 일생 동안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날 저 유명한 뉴욕 타임스 신문에 시험을 치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후 말단 기자로 취직한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말단에서 기초를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가 그렇게 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마음에 무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10년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3 일동안 결근하고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기간동안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

니다. 그가 근무하는 편집실 책상 위에 큰 성경을 얹어놓고 집무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갖다놓은지 2~3일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야근을 하던 어느날 밤 옆에 있는 동료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갑자기 성경을 책상 위에 얹어놓고 사무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맥킨토쉬는 기회가 온 것을 생각하고는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장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 그 친구가 찾아와 손을 내밀면서 자네 말을 듣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나도 자네처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갖다놓고 집무한 첫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적 운동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그 기자 중에 세명이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남미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신문 배달부 아이들 또는 직원들이 주마다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아직 직업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은 우선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은 병어라도 아니며, 귀머거리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직업에 관한 그릇된 견해

첫째로 지나친 성공에 대한 집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야망이 많은 크리스찬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자기 직업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이 직업적으로 통해서 성공을 거두기에는 너무 어려운 영적 장애물들이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명령

하신 것도 없고 그 직업을 반드시 성공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을 예로 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업상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는가 하는 결과보다 얼마나 크리스찬답게 건전하게 사업을 이끌어 왔는가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 풍토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공하게 하는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공이란 것이 과연 가능하냐? 사업을 할 때 과연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해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세속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공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이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에 있어서 성공의 도는 어떻게 만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직업 그 자체가 주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냐, 아니냐를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많은 함수관계를 갖

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이 보는 직업의 성공 그것은 세상이 보는 표준과는 다릅니다.

10가지 카테고리

화이트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당신의 직업」에서 ‘당신의 직업’이란 화이트의 10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우리가 직업상 얼마나 성공하고 있으며,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가지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신이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철저히 동행합니까?

② 당신 직업을 통해서 가족의무를 성경적으로 잘 실천합니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업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지 못하는 직업이라 하면 그것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을 주지 못하는 직업은 성공한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당신은 당신 직업에 만족합니까?

④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 합니까?

⑤ 직장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증거

합니까?

⑥ 당신의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심각하게 생각한 다음 반년이 상 한번 버티어 보았습니까?

⑦ 당신 생각에 당신이 하는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⑧ 당신 직업은 당신의 재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⑨ 당신이 매일 직장으로 갈 때, 권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지 않습니다?

⑩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③부터 ⑩의 항목 가운데서 긍정적인 답이 5가지 이상이면, 당신의 직업은 성공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은 크리스찬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 23, 24 절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자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계속>

54

□ 물맷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롬15:1-13)

“인간의 제일가는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밝힌다. 당신은 당신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뿐이다(롬12:1, 2)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당신에게 꼭 들어맞고 선하며 납득할만한 것인가?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의 모든 인격을 통해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매일 주님께 의지하는데 달려있다. 또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데 있다(빌1:20).



김창인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⑧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 네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번째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이며 두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번째는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 마지막 부분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이 말씀을 조금 세밀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악”은 한가지 악이 아니고 만가지가 넘습니다. 그와같이 수많은 악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약해서 이 악에 빠지고 맙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모든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천사 모양으로 입으로는 꿀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천만가지 악이 있는데 그 한곳에라도 빠지면 빠진 다음에는 호랑이나 사자가 함정에 밧이 걸린 것과 같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1) 육신의 병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의 뜻은 먼저 몸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여러가지 질병이 꼭차있는 세상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리고 육신에 병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왜 하시고 하면 하나님의 일위해서, 선한 책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2) 물질실패에서 구하옵소서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하는 말씀은 물질적 생활의 실패하는 자리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나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나와 거래하던 다른 사람도 손해를 보기가 쉽고, 그러면 하나님께 욕되고 나도 배고프고, 남도 고생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거나,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또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 이성적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하는 기도는 “이성적 악에서 건져주옵소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긴한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판단을 잘못할 때에는 큰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화목이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면 일이 낭패가 됩니다. 그러니 사건 판단을 바로 한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도자의 위치

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자동차 운전하는 기사가 핸들을 잘못돌리는 것과 같이 벼락을 맞을는지, 낭떠러지에 떨어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하는 기도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하는 것과 같습니다.

4) 영적 죄악에서 구하옵소서

네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하는 말의 뜻은 “영적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입니다. 처음에는 몸, 다음에서 물질, 세째로는 정신, 인격이요, 네째는 ‘영’입니다. 영적으로 죄악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 것이 생긴것으로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아들 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외식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마귀 앞에 결박당하는 시간이요, 악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몸도, 물질생활도, 정신생활도, 신앙생활도 악에서 떠나 승리하는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한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몸은 병들어 아픈데 영은 회개하고 죄악의 병이 먼저 고침을 받고,

사업의 실패로 물질은 손해를 보았는데 사람은 바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인격에 새로운 정신이 듭니다. 인격이 새로워진 다음에는 이전에 잃어버렸던 물질보다 열배나 더 주시고 영육이 아울러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약에 걸려도, 물질이 약에 걸려도, 판단력이 모자라서 약에 걸릴 때가 있어도, 신앙의 힘이 모자라서 약에 걸려별 죄할 때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인격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한번 없던 것이 그전보다 열배, 백배의 더 큰 성품이 옵니다.

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천지는 변할지언정,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약에 빠진 다음에도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약에 안 빠질 실력도 없고, 약에 빠진 다음에 쉬이 나올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약에 빠진 후에도 낙심없이 기도하면 빠지기 전보다 더 좋은 복도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이 몸에 병드는 때, 사업에 실패하는 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때, 흉년이 드는 때 약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을 오해하고 헐거를 내고, 물해를 내고,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욕독린 이생적 약에 빠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는 약에 빠지지 말고, 빠졌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약자가 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천국까지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화개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세트테이프 성경통신강좌 안내

1. 취 지: 시간 형편상 전교인 성경공부에 참석할 수 없는 교인들이 카세트 테이프를 통하여 각자의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 전교인이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대 상: 총현교회 전교인(특히 원하는 자는 타교인도 가함)
3. 1982년 2학기 수업기간: 1982년 9월 6일~12월 18일
4.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통(본원 소정 양식)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82년 8월 1일~31일
6. 등 록 금: 1학기 1과목당 13,000원(강의가 수록된 카세트 테이프 15개 대금 10,500원과 등록금 2,500원, 교재대는 별도)
7. 기 타: 지방 교인 및 특수 전도를 목적으로 신청할 때는 등록금 면제와 아울러 송료 본원 부담으로 우송하여 드림.
8. 공부방법:
 - 1) 1주에 1과씩 강의가 수록된 카세트 테이프와 간단한 문제지를 배부받아(또는 우송받아) 가정이나 직장에서 강의를 듣고 문제지의 답안을 작성하여 주말까지 총현성경연구원에 제출합니다.
 - 2) 문제지의 답안 제출자에 한해 곧 다음과의 강의 테이프와 함께 문제지를 배부(우송)합니다.
 - 3) 이같은 방법으로 전과를 공부하면(1과목에 10과~15과) 과목 수료와 함께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9. 기 타: 수료자는 전교인 성경공부 수료자와 똑같은 수료증과 대우를 받게 됩니다.
10. 교과목 및 강사
 - 1) 욕 기: 김 회 보 목사
 - 2) 호새야: 김 회 보 목사
 - 3) 요 나: 이 성 근 목사
 - 4) 로마서: 신 성 중 목사

□□□□

알 린 니 다

1. 이번 학기부터 장로님 성경공부반과 카세트테이프 성경통신강좌가 신설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바랍니다.
2. 2학기 개강예배가 9월 6일(월)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2학기 수강신청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과목의 교재는 성경연구원 사무실에서 취급합니다.

총현성경연구원

☎☎☎ 서울시 중구 충무로5가 36-3 전화 274-2171·2172

칼빈주의 교육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칼빈주의는 현대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이룩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현대교육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까? 그러므로 칼빈주의의 영향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근대 정신의 지주를 이루는 포괄적 사상 체계로서 교육을 포함한 모든 문화면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사상이다. 칼빈이 교육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책을 따로 쓴 것은 없으나 그의 교육 목적이나 학교 교육의 중요성, 조직등은 “기독교 강요”를 위시한 그의 여러 책에 잘 나타나 있다.

칼빈주의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상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낸다는 기본적인 사상은 변함이 없음을 찾아 보게 된다.

1. 교육의 기초

칼빈은 1538년에 작성한 제네바의 학교(The Genevan Gymnasium)의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기독교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칼빈주의는 성경의 기본적 권위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영역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표현되었다.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기독교 교리나, 도덕 생활이나, 인간 교육의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완전한 뜻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해하고 잘못됨이 없이 지도를 받도록 이 성경에 기록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경이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성경이 가라고 할때 가고 머물라고 할때에 머무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칼빈주의는 일반 교육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이해와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도록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생긴 이후 오직 성경에만 자신의 뜻을 계시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모든 것이 성경에 있으며 이것이 모든 지식과 교육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면 신분 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고 기록하고 있다.

2. 교육의 대상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참된 의미에서의 유일한 교육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부족을 채워주는 과정이라 하겠다. 부족한 상태의 인간이 교육이란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다.

사람은 어릴 때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통해서, 즉 그의 전 생애가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물론 동물이나 식물도 어느 정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약간의 발전과 개선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이 교육의 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성장 과정은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는데 교육은 양자를 다 취급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것이다.

칼빈주의는 교육의 대상인 사람이 지녀야 할 지식을 몇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홀로 사람을 만드셨으나 영적인 존재로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불순종하여 범죄하므로 타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성과 공의와 지혜와 선과 지적 능력을 잃어 버렸다. 그 결과 부패하고 악한 자리에 빠져 비참한 인생이 되어 버렸으며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었다.

세째,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배워 알 수 있도록 지적인 요소를 남겨 두셨다. 그래서 버림받은 상태에서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네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생겨 졌으며 하나님의 양자로서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인간은 이런 지식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3. 교육의 목적

교육이란 말은 본래 에두까레(educare)란 라틴말에서 왔는데 이말은 "끌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

칼빈주의 교육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데 칼빈주의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낸다는 이 교육 목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온다. 자기 자신의 유

익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것이다.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일반인문 교육도 종교 교육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점이 특기 할만하다. 일반 인문 교육의 과목도 종교 교육의 과목만큼 중요시되고 인문교육을 잘 받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을 통해서도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노력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모든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 내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4. 교육의 내용

칼빈주의 교육의 내용은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관한 지식에 토대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 관한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영광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와 친밀히 교제하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를 알만한 지식을 주셨으나 그것은 파괴되고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계시인 성경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셨다.

둘째, 사람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께 관한 지식에 근거한다. 사람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관한 지식에 비추어서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5. 교육의 방법

칼빈주의 교육 방법은 두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불결한 사람을 완전하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땅위에 오셔서 죽음으로 구속 사업을 이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감화 감동 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속을 이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교육하는 방법이다.

둘째, 각자의 마음에 내재하시고 진리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개인적 신앙과 자기 회망과 선행의 열매를 가져 오게 된다. 종교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현재도 교회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힘과 정열을 쏟고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야하는 성경교육과 그 교재부족 현상은 크게 염려되는 바가 크다. 교육을 통하여 오는 질적인 다짐이 없는 양적 부흥은 언젠가는 물거품같이 사라질 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다.

그런데 금번 다행하게도 저자가 그러한 필요성을 깊이 깨닫고 교회

□ 신간안내

김 하 진 목사 지음

평신도 성경공부 (구약편 상권)

점음출판사 · 304페이지 · 3,500원

내외의 구역에서 까지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교재를 저술하여 내놓은 것을 볼 때 참으로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이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자들도 이 교재를 적당히 활용하여 사용하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디 이 책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널리 사용되어 한국교회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추천 : 김희보 목사)

복음과 선교

= 성경적 전도론 =



조 영 길 목사

(제4 지구심방)

Ⅲ. 전도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형태는 다양하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한 방법으로 전도하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1. 국내전도와 동족전도

- 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 ②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 ③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5-6)
이같은 말씀은 철저한 동족전도와 국내전도를 뜻한다.

2. 국외전도와 이방전도

- ① 헬라인이나(이방인, 지식인)
- ② 야만인이나(이방인, 무식인)
- ③ 지혜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 ④ 로마인에게(이방인, 무력인) (롬 1:14-17)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전도가 주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행9:15)

3. 세계전도와 만민전도

- ① '온 천하에 다니며' (세계전도)
- ②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만민화, 복음의 우주화) 막 16:15.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골 1:23)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마 24:14)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막 13:10)

'여러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 14:6)

4. 개인전도 (요 1:45-46)

- ① 안드레의 개인전도(형제전도,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옴) (요 1:40-42)
- ② 빌립의 개인전도(친구전도,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께로 와보라'고 하였다) (요 1:45-46)

5. 대중전도

- ① 예수님의 해변에서의 대중전도 (눅 5:1-3, 막 2:13)
- ②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대중전도 (요 6:1-15)
- ③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대중전도를 실시하셨다. (마 14:13-21)
사도 바울의 저자 전도(public square, 시민광장)도 있다(행 17:16-18).

6. 옥내전도

- ① 가버나움 동리 베드로의 집에서 전도하셨다. (마 8:14-17)
- ② 가버나움 동리 어느집에서 전도하셨다. (막 2:1-12)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본다)

7. 직장전도

- ① 예수님은 가버나움 동리 세관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집무 중에 있던 레위(마태)를 부르셨다. (마 9:9-13, 막 2:13-17)
- ②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는 생업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어 시몬의 형제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셨다. (마 4:18-22)
직장선교와 선업전교와 공장전도

가 오늘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벌써 직장전도를 친히 하신 것이었다.

8. 노방전도

- 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 오시고 마을로 들어오시면서 한 문둥병자에게 전도하셨다. (마 8:1-4)
- ②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리에 들어오시면서 백부장에게 전도하셨다. (마 8:5-13).
- ③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면서 무덤사이에서(공동묘지) 지내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마 8:28-34)
- ④ 예수님이 길 가시면서 열 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마 9:19-22, 눅 7:11-17-나인 성으로 가시는 길 중에서도)
- 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길 가면서도 전도하라!'고 하셨다. (마 10:7)

9. 심방(방문)전도

- 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심방하시고 그곳에서 모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병도 고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마 8:14-17)
- ② 마태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 (마 9:10-13)
- ③ 한 직원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도 전하셨다. (마 9:23-26)
- ④ 베다니 동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심방하시고 말씀하셨다. (눅 10:38-42)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무덤에까지 찾아가 시어 말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요: 11)

⑤ 사마리아성 수가 동리 우물가를 찾아가시고 죄많은 한 여인을 기다렸다 만나시고 전도하여 구원하셨다. (요 4: 5-26)

여리고성 삭개오의 집도 방문하시고 전도하셨다 (눅 19: 1-10).

10. 회당전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시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마 4: 23-24, 마 9: 35-38)

②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자가 있는지라' (마 12: 9-21)

③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눅 4: 16-30)

④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새...' (행 13: 5-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도 회당에서 전도하였다)

1). 문서전도, 방송전도, 카세트 테이프 (Cassat Tape) 전도, 전화전도, 비디오전도 (V. T. R)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전도가 없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여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당시에도 위와같은 시설과 기계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용하셨을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효과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계와 시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와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여야 한다.

① 문서전도: 전도자를 인쇄하여 이용하는 전도, 신문, 잡지, 여러가지 간행물을 통하여 전도하여야

한다.

이같은 문서전도는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다.

② 방송전도: 문서전도에 비하여 훨씬 더 전도의 범위도 넓고 효과적이다.

북한 선교회를 통한 방송전도를 중공땅에 사는 우리 교포와 소련의 사할린 땅에서 사는 우리 교포들이 듣고 감사의 편지와 성경과 찬송가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있는 실정이다.

이 얼마나 큰 성과이며 놀라운 일인가?

③ 카세트 테이프를 통한 전도: 설교와 찬송 그리고 간단한 복음의 내용과 간증담을 녹음하여 분배한다면,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돌려 가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도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멀리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들에게는 우송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④ 전화를 이용하는 전도: 가정에서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다. 간단한 복음의 핵심을 직접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서 돌려줄 수도 있고, 간단히 기도하여 줄 수도 있다.

오늘의 많은 목회자들이 전화를 통하여 교인가정을 문안하며 기도하여 줌으로써 "전화심방" "전화기도" "전화전도"를 실제로 이용하고있는 실정이다.

⑤ 비디오 테이프 (Video Tape) 를 통한 전도: 오늘에 와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들 VTR (Video Tape Recorder) 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두기도 하며 VTR을 이용하여 공부하기도 한다.

이 얼마나 편리하며 좋은가?

예배드리는 광경이나 설교 내용을 시청각적으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 수록하여 전도하는 방법은 아주 효과가 크다고 본다. (우리 출현교회가 강남 고속 버스 터미널 휴게실에서 이미 실시 하고 있지만...

...) 한가지 흠인 것은 비용이 아직은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제 곧 대중화가 될 때에 복음전도에 많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과학 문명이 더욱 발달하고 더 훌륭한 전자 제품과 컴퓨터가 대중 속으로 쏟아져 들어 오는 날 우리는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복음 전파에 이용하도록 연구하고 계획도 하여야 된다고 본다.

IV. 전도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난 여러가지 전도 방법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세례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수님의 전도방법

1) 대중 전도의 경우 (對象傳道)
(1) 막 1: 14-15 (마 4: 17)

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 시간의 긴급성 혹은 중요성을 뜻한다 (고후 6: 1-2)

② 회개하고 — 신앙의 선행 조건으로

③ 복음을 믿으라 — 복음의 최종 결론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롬 1: 2-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길은 달리 없다 (행 4: 12 요 14: 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요 1: 12 계 3: 20).

(2) 마 9: 35 (4: 23-25)

①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 사람들을 찾아 다니시는 겐도 (전도 여행)

② 저희 회당에서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③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 손수 복음, 천재적인 복음과 본래적인 복음만을 전하셨다.

④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영육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 땅위에 죄값으로 모든 절고가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절고까지 친히 담당하시

고 짊어지신 것이다(마 8:17, 사 53:5하 벵전 2:24)

2) 개인 전도의 경우(個人傳道)

(1) 요 1:38(마 4:18)

① 와 보라!(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은 신앙의 행위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의 동적인 표현이다(마 11:28)

(2) 요 4:6—26(남편을 여섯이나 둔 죄 많은 수가성의 여인에게)—7 단계 전도전략:

① 그를 만나기 위한 시간의 할애와 기다림(6)

② 물 좀 달라는 평범한 말씀으로 접근(7)

③ 평범 하고도 일상적인 대화(9—10)

④ 물 → 생수 → 목마르지 않는 물로, 우물 걸인만큼 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여 복음의 깊은 곳까지 점차적으로 말씀하셨다. 세속적인 평범한 이야기에서 점진적으로 복음의 깊은 곳까지 안내하셨다. (11—15)

⑤ 죄 문제를 지적하셨다(16—18)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나에게 달라고 청원하는 여인에게 먼저 죄를 청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막 1:15)

⑥ 잘못된 종교관 혹은 잘못된 선입관념을 시정하여 주시고(19—25)

⑦ 비로소 예수님 자신을 공개하셨다(26)

“내가 그로라”고 자신을 공개하시고 결국 죄 많은 여인을 전도자로 만드시고 수가성의 전도를 그에게 맡기신 것이었다(28—30, 39) 우리는 여기에서 현대 전도전략을 배울 수가 있다고 본다. 본문을 주의 깊게 연구하여 해독하게 될 때에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하고도 성공적인 전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2. 세례 요한의 전도 방법

(1) 마 3:1—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세례요한의 메시지 내용과 방법은 예수님과 비슷하다(마 4:17) — 회

개와 신앙의 긴급성

(2) 요 1:23—34

①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였다(23)

② 그러므로 그는 민중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다(24—28)

③ 오직 그리스도(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였다(29—34)

세례요한이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요 1:19—22)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였다. 전도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3. 사도 베드로의 전도 방법

(1) 행 1:23—36

베드로의 전도방법은 주로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 이후에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거리에 나가서 민중들에게 전도 설교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① 예수님을 통한 인류구속 사업의 예정(23)

② 예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24)

③ 예수님의 승천과 심판주가 되심(33)

④ 예수님의 메시아성(구주性)이다. (36)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승천과 그의 메시아 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까지 이 모든 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약성경에 예언하였던 사건이었음을 증거하였다. 즉 인류 구속사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과 성취였음을 전파하였다.

(2) 행 4:2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였다. 베드로가 전도하는 내용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모여

분석 집약한 것이다(행 4:1)

(3)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같은 말씀은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잡혀 공회(公會) 앞에서 심문을 받으면서 외친 것이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요약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 구원의 일방통행(一方通行), 영생에의 외길(one way), 오직 예수(sole christe), 예수 구원의 길 밖에는 없다는 원색적인 복음(original gospel)을 전하여야만 한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상천하지(上天下地)에 오직 예수 이름 밖에는 없다(행 16:31, 요 14:6)

4. 사도 바울의 전도방법

(1) 행 16:31—32

① 주 예수를 믿으라(요 3:16, 히 12:2)

②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요 14:6, 딤후 4:18 개인 구원에서 가정구원으로)

③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바울의 전도 일념, 열심 전도의 면을 본다. 매맞고 옥에 갇혀 지친 몸이었지만... 행 20:24, 롬 14:7—8)

(2) 고전 2:2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 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후 4:5)

바울이 처음에는 아덴시에서 날마다 저자(Public square)에서 에비구레오(Epicurean = 향락주의 사상) 철학자들과 스토이코(stoicism = 금욕주의 사상) 철학자를 만나 철학적으로 변론하며 예수님과 몸의 부활의 도리를 전하였다(행 17:16—20).

그러나 그 철학적인 변론이 별로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십자

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였다”(갈 6:14, 고전 2:2) 성공적인 전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순수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

(3) 고전 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였다.

바울의 전도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였던 것이다. (고전4:20, 살전 1:5) 인간의 말과 힘은 아무런 영혼에의 감화를 주지 못한다.

(4) 고전 9:19-23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바울 자신의 다양한 처신을 보게된다.

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였고(20上)

②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였고(20下)

③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였고(21)

④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약한 자와 같이 되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였다. (22) 이같은 바울의 다양한 처신은 지혜로운 전도자의 처신이다. 복음은 어떠한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여 주어야만 하기에 바울의 다양한 처신을 배워야 하겠다.

5. 제자 안드레의 전도방법

요 1:40-42

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가까운 형제 전도를 먼저하였다, 이것은 가장 쉬운 면서도 안전한 방법이다.

②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나혼자 들은 것도 본 것도 아

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직접 보았고 만났다고 하였다. 객관적이고 소극적인 전도가 아니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전하였다.

③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었다. 모범적인 개인 전도의 모델이다. 오늘 우리도 내 형제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해야한다.

6. 제자 빌립의 전도방법

①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가까운 친구를 찾아갔다. 형제와 친구는 전도 성공의 확률이 가장 크다.

②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예언 성취의 메시아 곧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보았다고 하였다. 그분은 토라(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네비임(역사서밋 선지서)에서도 거듭 거듭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내 자신이 믿고 만난 예수님을 자신있게 전하여야만 한다.

③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라야 하고 나사렛 예수라야만 한다. 요셉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도성인신(Incarnation)을 뜻하고 나사렛 예수란 예언의 성취이다. (마 2:23)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예수(통일교)와 박예수(전도관)와 여호와의 증인 예수와 물론 예수는 참 예수님이 아니다.

바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④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핑계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예수님 앞으로 오도록 하고 인도하는데 있다. 빌립은 다른 말 할것 없이 예수님 앞으로 「와보라!」고 하였다. 요 1:45-51

7. 제자들의 전도방법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저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들썩들썩 짝을 지어(막 6:7) 전도하도록 파송하셨고 70인의 전도대도 그와 같이 하셨다. (눅 10:1)

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6-8)—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국민(동족)의 전도이며,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낙심하고 타락한 자들의 전도이다.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찾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였다—복음과 구원의 은혜성이다.

②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막 6:12)

③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눅 9:6)

④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눅 10:9) 여기서 나타난 전도의 공통점은 복음전파와 함께 회개와 믿음의 긴급성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유 활동이다.

이상과 같이 전도(선교)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전도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 이었음을 보았다.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민감하게 전도의 방법을 개발, 대처하여 나가야만 한다. 이는 마치 바울이 시도한 다변적인 처신과 같은 것이다(고전 9:19-23).

그러나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음 전리의 불변성이다. 오늘 우리는 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깊이 연구 분석하여 이해하고 현 시대상에 맞도록 적용하여 아무쪼록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계속)

기도의 올바른 이해



전 순 영 목사
(디트로이트한인교회시무)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비애나 고통이나 죽음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불화한 후로는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이 안겨졌고, 무서운 죽음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되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행복도, 즐거움과 기쁨도 사라지고 세상에는 불신과 질투, 분노와 복수로 불안을 빚어냈는가하면 고통과 죽음이 엄습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케 하셨으며,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나은 심령을 주셔서 계속 향상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신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속성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참으로 죽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르므로 그들이 바라는 것도 다 제각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원이나 갈구도 엄격히 말하면 다 이를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다 이루었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아니라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기도에 나타난 두가지 속성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회구하는 두가지 속성이 있다면 이기적인 속성과 이타적인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19절에는 “음행,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일, 분쟁, 시기, 분냄, 당과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이기심 때문에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기원하는 기도는 모두 이기적인 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허황된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타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평생을 이기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주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대통령은 인간이 한번은 거듭나야 하는데 그 시기를 40대로 잡고 있으며 이 나이 때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나 다름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러한 허욕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로 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인간은 거듭 태어나는 회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두가지 속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지만 한 무리는 타락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무리와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로운 심령을 가진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무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 응답받는 기도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회구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다 응답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만 응답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곧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사랑과 희생이 내재된 이타적인 기원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도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것만을 기원함으로 끝내는 무의미한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4:3)는 말씀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명백하고 진실한 기도

우리는 흔히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하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형식은 그 교회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형식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대화요, 간구이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아뢰어야 하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기도 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는 진정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말고 “골방에 들어가 진실되게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용하고 은밀한 가

운데 진실하게 드리는 무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도록 애써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4. 기도의 능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말해서 사업의 실패나 병고, 억울함, 고독, 실망, 가난, 전쟁, 사별, 이혼, 재난, 이직 그리고 슬픈 일 등 인간의 난제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난제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으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절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는 다만 은밀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를 하는 것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먼저 갖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할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88



각종전자제품도매

• 취급품명

1. 칼라T.V., 냉장고, 세탁기, 전축, 비디오, 녹음기, 밥솥, 밥통, 가스렌지, 믹서, 커피포트, 에어포트, 다리미 등 가전제품 일절.
2. 비디오 촬영·녹화(결혼, 회갑연, 관광, 각종 행사 출사)

• 본 점포의 특징

1. 본 점포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보장되는 일류 메이커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2. 본 점포는 유통과정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필요하신 물건을 대리점이나 타 전자센터에 가격을 알아 보시고 본 점포에 다시 가격을 알아보시면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화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5. 어떤 전자제품이라도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상사

261-1188·266-9226

대표 오정현 집사
오정수 집사

재서독 베를린 성악가 권금신씨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대 담 : 장 수 편집부장

문 :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만에 귀국하셨는데 귀국하신 소감과 교회에 오랜만에 오셔서 보고 느끼신 점,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제가 76년 6월 23일에 출발해서 만6년 23일만에 귀국했습니다. 특히 76년과 82년 사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급격한 발전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구나! 강변으로 보는 도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는 좁고 사람들이 많고 차도 많아져 비좁지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돌아다니고 의욕에 찬 모습들을 보니 제가 정말 생활전선에 뛰어든 느낌이었읍니다. 또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 느낀 것은 서울도 인구에 비해서 좁지만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하루바삐 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읍니다.

문 : 귀국하신 후 돌아보신 데는 어디어디였읍니까?

답 : 그동안 저를 위해서 쉬기 위한 휴가를 한번도 못가져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안 식구들과 아는분, 친구들을 만나서 쉬기로 작정했습니다. 돌아본 곳은 모교인 성신학교에 갔다 왔읍니다.

문 : 권선생님의 가족관계, 신앙경력, 수상관계 등 자기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 어머니와 출가한 오빠 언니가 있습니다. 신앙은 성신학교가 미션계통으로 교목도 있고 가끔은 수양회에 참석하는 기회도 가졌지만, 대학에 가서 제가 무엇인가 갈급하고 있을 때 지도교수님이신 이 관옥교수님이 저의 직접적인 신앙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성가를 부르기 위해서 2년간 다녔고 그후 선생님께서 옆에서 말씀으로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피부로 느꼈읍니다. 방학 때라든지 시간있으면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생활로 보여주시면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대학 3학년으로서 굉장히 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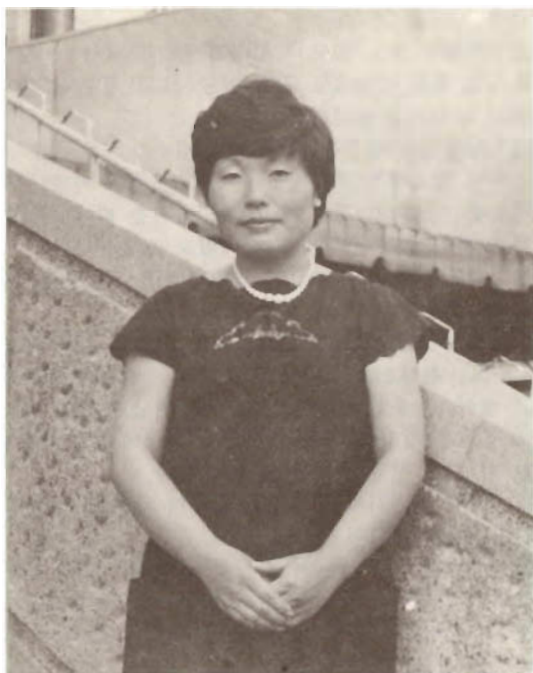
었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학생회의 자선음악 프로그램은 언제나 맡아서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신 김 중석씨가 서울대학 기독교학생회장을 하실 때 서울시내 교회를 돌면서 성가로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충현교회에 왔읍니다. 73년 졸업하던 해에 김 중석 목사님이 소개하시고 이 관옥선생님이 그 교회는 내가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교회니까 봉사를 하라고 하셔서 왔읍니다.

문 : 도독(渡獨) 하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셨읍니까? 그리고 직접 유학을 하게 되신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제일성가대 독창자로 충현교회에 와서 떠나기 전 주일까지 봉사를 했읍니다. 많지도 않은 햇수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신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부터 항상 독일에 가서 공부해 보고 싶었읍니다. 대학다닐 때 72년 10월 동아콩쿠르에 입상하고, 총회신학교에서 두 학기 강의를 했읍니다. 총신에 강의를 하면서 75년 가을에 한국음악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음악콩쿠르에 응시해서 일등에 입상했읍니다. 콩쿠르에 입상하고나서 음악협회 회장이신 조 상현선생님께 상의를 드린 결과, 베를린음악대학 제가 공부한 선생님께 재 노래를 실은 녹음테이프와 경력 사진 등을 조 상현선생님이 직접 가지고 갔읍니다. 교수님이 듣고 초청해 주셔서, 76년에 한국을 떠나서 9월에 그 학교에 입학해서 80년 2월에 졸업했읍니다. 졸업과 동시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오페라단에 응시해서 지금까지 합창단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단원이 114명으로 동양인은 저 혼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자리가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가를 내어도 1,2년 정도면 다시 받아주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면 자리가 비는데 어떻게 저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읍니다.

문 : 앞으로 얼마나 더 독일에 체류하실 계획입니까?

답 :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오페라에 대해



앞에서 보는 것보다 무대 뒤의 상황과 연습과정 등이 저한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대를 보고 배우고 제 나름대로 좋은 교수님들을 찾아서 좀더 폭넓게 배우고 싶습니다.

문: 지금까지 공연하셨던 작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2년반 동안 27편의 오페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페라단은 모든 수준이 국제적 입니다. 만약 오늘 저녁 라보엠이 공연되어야 될 경우인데 솔리스트나 극장사정으로 라보엠을 못하게 되면 당장에 딴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단원이나 모든 장치가 제일 수준급입니다. 처음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노는 것 같아도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놀고 있습니다.

문: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이 연주되는 오페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오페라는 가수와 지휘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떤 것이 특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가수가 하면 좋고 아무리 좋은 오페라라도 나쁜 가수가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2년반 동안 지켜볼 때 가수가 좋은 나쁜든 상관없이 공연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모짜르트의 「마적」입니다. 언제나 표가 매진되고 우리 극장에서 1년간 공연횟수가 가장 많은 오페라입니다.

문: 독일에 계시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가지겠조,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독일교회 활동, 신학동향 같은 것

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처음에는 출현에 같이 있던 식구와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정도 모르고 순복음교회에 나갔습니다. 올겐 반주서부터 독창 성가대 지휘까지 2년반 동안 하는데 그 교회가 독일교회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일교회 목사님이, 조찬기도회나 독일교회에 예배가 있을 때에는 부탁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못하고 아침이건 저녁이건 우리 교회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인선교교회가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성가대겸 풀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약 120명인데 주일날 평균 모이는 수가 80, 90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베를린에서는 수준급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문: 독일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좌경화된 자유주의적인 신학경향을 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못느꼈습니까?

답: 제가 순복음교회에 나가다가 교리문제 같은 것이 맞지 않아서 잠깐 독일 정통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 순서나 모든 것이 저희 개혁파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시끄럽지는 않고 겉으로 보는 것이지만 경건하고 교회 분위기가 든든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이나 교인들의 생활 태도를 볼 때에는 상상했던 교회와 다르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니까 한인교회를 찾고 싶어서 1년간 한인교회를 나가면서 시간이 나면 독일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거기서 뜨겁게 받아들인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은근하면서도 생활로서 배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보수파에서 금지되어 있는 술, 담배 같은 것은 목사님이나 올개니스트들도 공공연히 예배 끝나고나면 그 자리에 돌아서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볼 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인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서 한인교회를 찾았습니다.

문: 동서베를린의 장벽을 보시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거기는 어디를 가든지 끝으로 가면 막히는 곳이 강이기 때문에 길이 넘어서 보이고 동독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베를린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입장과 같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나라의 일이라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왕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독일교회 기념일이라고 해서 특별 성가를 드리고나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에서 넘어 온지 일주일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오셨느냐고 물었더니 동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정부에다가 남은 여생은 서베를린에 가서 살고 싶다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 나라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서독으로

을 수 있기 때문에 여생을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서독으로 넘어와 교회에 첫발을 내디딘 분이었습니다. 동독의 신앙생활을 물어보았더니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나 자유국가에서처럼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것도 없고 해서 남은 여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같은 분단국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같은 동족으로 숨쉴 여유는 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면 이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국민과 해외에 있는 크리스찬까지 북한선교에 힘을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독일에 있는 교포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답: 한 마디로 말해서 열심히입니다. 불신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베를린에 한국인이 2천명 정도인데 교인수는 6, 700명이며 독일교회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충현교회에서 왔다가 「보충수표」라고 하면서 보나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교포사회는 전도율이 높고 연령층이 젊고 중류급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알아주고 특히 한국 간호원들이 몸이 작아 힘에 겨워서 못하지, 췌는 안 부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 독일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답: 그 나라 지성인들이 자기 후세대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생활태도가 방종하고 문란합니다. 또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어떻게 하고 다니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패 도시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킬 만큼 회한하게 하고 다닙니다.

문: 우리 교회에도 음악하는 분중, 유학 지망생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답: 먼저 당사자들이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는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독일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전공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언어 준비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공을 잘한다고 해서 방심하고 언어를 소홀히 하면 안한 만큼 고생을 합니다. 또 외국에 유학을 간다면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인 것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만 듣고 어렵다더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문을 두드리는 노력은 자신이 하고 부수적인 학교 입학원서 같은 것은 가능할 수 있다면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니다.

문: 독일에 어느 정도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으시리라 믿는데 언제쯤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당분간은 연주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후진양성을 하고 싶는데 자료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 만나뵈고 느꼈습니다.

문: 앞으로 특별한 희망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답: 개인적인 희망은 한국에 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요. 충현교회에 오면 집을 떠났던 새가 제집에 돌아온 것같이 마음이 편하고 한국에 돌아와야지만 더 깊은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문: 아직 미혼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결혼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답: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때가 아직 안되었으니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가 성가대에 있어서 그런지 성가대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새성전에 입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영광스럽게 찬양을 돌리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제 욕심같으면 좀더 수준급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식구들"하면 "그식구들 믿음이 상당하고 좋더라"하는데 성가대는 희미한 것 같습니다. 예배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한국에서만 말씀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는 좋은데 제1성가대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두세명 정도입니다. 대예배를 드리는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두세명 이라면 지휘자 선생님의 팔에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성가대가 우리 교회의 어떤 것보다 절름발이식으로 떨어져 있어서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가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충현

◇ 권금신씨 주소

Keum-Shin Kwon
1,000 Berlin 19
Marathonallee 17
B. R. D.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 훈련

— 제2차 전도특공대 하기훈련을 마치고나서 —

조 준 상 목사

(북한선교회 지도)

먼저 은혜가운데 모든 훈련을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충현교회와 남녀전도회와 권사회 그리고 여러 무명성도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충현교회 5대목표 중에 하나이며 또한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꿈에도 소원인 북한선교 사업이 날로 확장 발전되어 가며 구체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음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나라 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

시 찾자” 언제 읽어 보아도 들어 보아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더더구나 주의 복음전파 사명을 맡은 자라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며 그리고 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이 명령이 좀더 성숙하게 구체적으로 실시 되어진 훈련이라 생각됩니다. 일을 맡은 자로써 처음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318명 인원이 동원되는 일,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 그리고 이들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

하며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일,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으나 『하나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시작한 일은 일을 맡아 수고할 임원철약기도였습니다. 두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산상철약기도를 가졌습니다.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은 백프로였습니다.

인원 동원 문제 마감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고, 물질문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하는일 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제신다는 것을 눈에 목도하는 것처럼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개강 예배를 은혜중에 드리고 특히 통일촌 이관장의 특강으로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그에 대처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감명깊게 듣고, 귀순용사 박명화씨의 간증으로 이북에 있는 내동포가 당하고 있는 탄압과 핍박이 어떤가를 생생하게 들었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다 감격과 눈물과 통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불타는 사명과 은혜의 폭풍은 참석한 모든 대원의 가슴 속에 뜨겁게 몰아 부쳤습니다. 청량리역에 이미 대절한 열차에 전 대원이 탑승하고 보니 8시 30분,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 하였으며 순서에 따라 차증예배가 실시되었습니다.





“모든 인생 계급장은 다 떼어 버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하여 불의 사람, 말씀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됩시다”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설교하고 세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 고생할 각오, 그래도 은혜만 주시면 좋겠다는 결심으로 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별 대항 조구호와 조가가 있었는데 서로 지게않겠다는 열띤 경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것 마치고 나서 밤 11시 30분, 간식을 나누고 12시부터 전원 차중 취침에 들어 갔는데 자는 시간은 도합 2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기상하여 여련역에 내리니 3시였으며 도보로 두시간 동안 행군하였습니다. 손에 손에 전지를 들고 300여명의 긴 행렬은 어두운 저 북녘땅을 향한 전리의 빛이라. “주 어서 빨리 이 등불이 이 북에 있는 내 동료에게도 밝히 비추는 달을 주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훈련원에 도착하여 참석 인원 점검 하여 보니 318명이 넘는 345명 이었습니다. 숙소배정 끝나기 무섭게 예정대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밤이 맞도록 열차에 시달렸고 잠도 제대로 못갔으며 또한 두세시간 도보 행군하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할없이 피곤했

겠지만, 산 좋고 물 좋고 풍치 수려한 훈련장, 그리고 꼭 은혜 받겠다는 대원들의 각오, 사명감 가지고 부족하지만 외치는 강사들의 강의가 모든 피로를 다 물리쳤습니다.

임경섭 장로님의 생생한 간증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어 종말론 강의와 전도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새벽 5시에 기상, 5시30분 부터 6시30분까지 새벽기도회, 6시30분 부터 7시까지 체조 훈련, 7시 부터 7시30분 까지라면, 7시30분 부터 9시까지 금식하며 성경 읽기 및 성경시험, 9시 부터 12시 까지 종말론 강의, 12시 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 1시 부터 3시까지 체력훈련, 3시부터 5시까지 전도훈련, 5시부터 7시까지 찬양훈련 7시부터 8시까지 저녁식사, 8시부터 10시 반까지 저녁 부흥회, 10시 반 부터 12까지 조별 합심기도회를 가졌고 12시부터 5시까지 취침이었습니다.

휴식없는 프로그램 이었지만 계속되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마치 활화산 처럼 타오르기 시작 하였습니다. 한번 찬송 불렀다 하면 한두시간 가는줄 몰랐고, 기도했다 하면 어찌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지 온통 성령의 불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힘있는 손길이 계속해서 집회 때마다 강하게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온사도 강하게, 치료하심도 강하게 그리고 사명주심과 은혜 주심도 강하게, 특히 찬양과 기도의 역사는 메가톤급 원자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감사 예물이 강대상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30여평되는 그곳에 350여명이 들어 앉았으니 그 고통 얼마나 심하랴,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없고 그것이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바뀌더니 얻어진 응답은 새로 1000여명 들어가는 예배당 짓자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감동되는 성도들의 작정 현금으로 이백삼십만원 작정되었고 감사원금은 일백삼십만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1000여명 들어가는 성전 짓는 금액에 비하면 적은것이지만 시작을 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줄 믿습니다.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스케줄 중에 도강훈련이 있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한사람도 예외없이 도강훈련에 참석했는데 물에 겁을 먹는 사람도 있었고, 몸이 좀 연약하고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 옷입은채로 그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영원히 잊지 못할 훈련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건너는 그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방불케 하였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전도특공대원들이 대동강, 청천강을 그렇게 건너 북으로 진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 주시는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5박6일의 훈련은 순식간에 끝났는데 특히 노약자도 많았고 병든 자도 많이 참석했지만 한사람도 낙오없이 그 고된 여행길과 훈련과정을 무사히 마치되 특히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마쳤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섭리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 회원님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북한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한 그것은 우리 손길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원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한 여러 이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000명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계속되는 북한선교 성경공부에 참석하셔서(매주일 저녁 5시30분 유년부실)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북녘땅에 내 동료에게는 구원, 그리고 사명받은 우리에게는 충성” 할렐루야! 아멘!

홍정

믿음으로 통일하여

건축하자 평북교회



평북조 김 애경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정선 기도원에 무사히 다녀오게 된 것이……

떠나기 3일전 부터 고질적으로 앓아오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집안 식구들은 기도원에 가는 것을 극구 말렸다. 그러나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있으며, 나의 병이 마귀의 역사임을 아는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으랴.

그때의 일이 생각난다. 난생 처음 철야기도회에 참석했던 4월 어느날 조준상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에 감동했던 나는 뜻밖에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다. 조목사님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하셨고 나는 심장부근에 손을 대고는 나의 병을 낫게해 달라고 기도드렸다. 그 순간 심장이 뜨끔해지더니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후 철야 기도회를 즐겨 나가게 되었고 내 육신을 괴롭히던 심장병도 편안히 가라앉아 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주님을 향한 나의 확신이 옳았다. 기도원으로 떠나기 전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동안 심장이 편안하게 가라 앉았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선행 기차 안에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뭉친 한 형제가 되어 그 분위기가 시종 화기애애하였다. 우리는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며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했다. 기차 안에서의 찬송과 기도는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정선 여련역에서 내린 북한선교특공대 일행은 조별로 집합한 후, 기도원을 향해 약2시간반 동안 도보로 행진을 하였다. 상식적으로 기차로 7시간반 동안 시달리고 약2시간 반 거리를 도보했다면 고된 여정이란 하겠지만, 찬송과 구호를 외치며 가는 행진 길에 일행의 얼굴마다엔 전혀 피로의 기색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차 있었던 것 같다.

우리 '평북조는 믿음으로 통일하여 건축하자 평북교회!'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 통일이 눈 앞에 보이는 양 즐거워 하였다.

새벽의 행진길, 저마다 손전등을 켜고 가는 행렬은 너무나 멋있었다. 수많은 빛줄기가 가리키는 곳은 정작 천국이라, 개천과 절벽 사이를 가는 아름다운 경치 또한 일행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곳이 바로

천국길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기도원에 도착해 숙소를 정하고 기도원에서 보낸 3박4일의 일과는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었다. 성경공부와 압복강 나누터 모세제단에서 조목사님의 모세에 대한 설교 또한 잊을 수가 없다.

이번 기도원 생활에서 화장실 문제를 비롯해서 잠자리, 식수문제 등으로 인해 몇몇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정선기도원이 생긴지 얼마 안되는 점을 고려해서 그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해야 할 줄

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 압복강을 건너가게 되었을 때, 나는 매우 두려웠다. 심한 현기증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도저히 물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찾는게 아닌가. 그때 이번에도 모든걸 주님께 맡겨보리라 마음먹고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제일 선두에 서게 되어서도 주저함 없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주님의 보살핌 때문이라.

주여!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이 마귀를 물리쳤나이다.

끝으로 교회에서 수료증을 받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에 넘쳐 있었다. 심장병으로 어렵게, 떠나서 주님의 은혜로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질향상 위한 음악훈련

—성가부하기수양회를 마치고—



차 신 득 집사

(제일성가대장)

금년에도 성가부 하기수양회를 갖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라는 주제 아래 김하진 목사님과 지휘자들(이관섭, 이성직, 남궁은집사)을 강사로 모시고 3박4일동안 「바울의 집」(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 소재)에서 가진 이번 수양회는 우리교회 성가대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를 향한 많은 시도와 노력 속에 진행되었으며 많은 결실과 새로운 가능성을 얻고 돌아온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성가대는 예배의 음악부문을 전담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기에 성가부의 수양회는 신앙훈련에 못지않게 예배의 중요성과 성가대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자질향상을 위한 음악훈련에도 중점을 두어오고 있으며 여러 성가대의 연합행사에 기여 대원간의 친교도 소홀히 하지않고 있다.

금년수양회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신앙훈련, 음악훈련 및 친교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도 이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신앙훈련 : 경건회, 성경공부(골로새서를 감해, Candle service, 선교특강등.

○ 음악훈련 : 시창, 발성, 합창, 음악감상, 중창대회등.

○ 친 교 : 경영게임, 커뮤니케이션게임.

체육, 조별친교의 시간 등.

이러한 계획 속에 시작된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한 일꾼들을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성가부수양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으로 일할 숨은 일꾼들을 많이 예비하고 계셨고 이들을 통해서 수양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귀한 일꾼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얻은 것을 몇가지

로 정리해 본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짧은 기간이었지만 골로새서를 전부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을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주제(골3:16)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는 점과 시간부족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조별토의 시간을 통한 상호교육의 효과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바울의 집」에서 준비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선교사업의 현황과 그들의 선교의 비전과 사명감에 찬 의욕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음악공부 시간은 평소에는 별로 가져보지 못했던 개인실기지도도를 통하여 자신



의 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받고 느끼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한 합창의 새로운 묘미를 느끼면서 세계 유수한 합창단의 합창을 직접 들어보며 배우는 시간 등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네째, 교회에서는 좀처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게임 중의 하나인 경영게임과 「커뮤니케이션」게임등의 시간을 통하여 대원간의 친교는 물론 성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중의 하나인 협력의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마지막 밤시간에 가졌던 Candle Service 시간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서서 감사와 회개와 결심의 기도를 드림으로 수양회에 참석한 자신을 총정리 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해동안 실시되었던 성가부수양회를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성가부수양회가 되게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1. 신앙훈련의 강화

신앙훈련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성경공부 시간에는 조별토의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여 서로의 안고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씀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이

를 위해서는 강사의 충분한 준비와 유능한 조별 리더의 선발 및 사전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개인지도를 원하는 자에게 충분한 시간여부와 분위기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고 특별한 문제로 고민하는 자에게 목사님과의 개인상담 시간을 마련하는 것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 실기위주의 집중적인 음악훈련지향

성가대원들 중에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오랜기간 성가대원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오로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봉사해보겠다는 의욕과 믿음 만을 가지고 성가대에 몸을 담은 사람들도 있어 그 구성이 실로 다양한 편이다.

이들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각 성가대에서는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중적인 훈련이 가능한 수양회기간을 통하여 개별적인 실기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각자의 개선하여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한편 합창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도록 하여줌으로써 질적인 수준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사전준비가 물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빌어 교회 앞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회내(예를들면 성경학원)에 성가대원의 양성을 위한 정규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사람들이나 이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신앙교육, 교회음악, 음악이론 및 실기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케 함으로써 성가대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성가대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본 교회성가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81

새 막사에서 은혜중 첫 예배

—기도와 사랑의 교제 계속 되기를—



안 명 수

제 1 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사히 임지에 안착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중에 근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운전교육, 현장과악, 현장 토목시험방법 등을 공부하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GB 교회 소개

오전, 오후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매예배시마다 40~50명이 모여 눈물로 찬양하며 가족과 회사, 나라와 본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있는 집사님들이 교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매저녁예배 30분전에 찬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르간(2,500리알, Saudi Ryal, 1리알=한화 약 210원)을 구입코자 현금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 처음 현금에 약600리알이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교회가 발전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 현재 근로자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 교회당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리야드한인교회를 방문, 영락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고장로님을 만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개인기도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석자 12명) 이 기도원은 건물이 전혀 없는 황야, 사막의 벌판에 있는 조용한 언덕입니다. 리야드시에서 미니버스로 약 3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방언하는 성도도 있었으며 매우 감격스런 기도회였습니다.

제 2 신

오치용 목사님 이하 선교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제(6/27) 해외선교부에서 보내주신 충현지 5,6월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문득 “민족과 선교” 책자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 떠오르는 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솔로몬의 옷보다 좋건만 모교회의 “충현”지와 “민족과 선교”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의 향기 날리는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막사를 전면 교회예배처로 허락받고 은혜중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중고 품이기는 하나 전자 오르간을 구입하였습니다. (한화 약 36만원) 2제단식 건반, 베이스 발판 및 각종 악기 사운드, 리듬 콘트롤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리야드 한인연합교회 현당예배를 거행했으나 미참하였고 청운교회(강일용 전도사 시무, 약200명 성도가 참석하는 아름다운 교회임) 예배에 참석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파종의 전도로 4명 얻었으나 믿음과 정서상태 불안정,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기도와 사랑의 교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믿음, 지혜, 건강, 인내,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회사를 위해,

부족한 형제 안 명수 올림

현지주소:

Ahn Myung Soo(Laboratory)

Chin Hung International Inc

P.O.Box 6067 R.G.B. Project

Riyadh, Saudi Arabia

의의 병기로 헌신하는 대학부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



◇허충욱 목사



◇윤인현 집사



◇성주진 전도사



◇김정순 전도사

1953년9월6일 교회 설립이후 청년 면려회로 활동하여 오던중 1960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지교회인 충북 옥천 세산교회에 청년회 계몽대를 파송하였다.그 이후에도 여름 농촌 계몽대는 계속 파송되었다.

1961년에 조천일 목사가 지도 교역자로 취임하면서 그당시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학생이라 하여 청년회를 대학생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다시 1963년 부터 교회내의 많은 청년들을 포섭 흡수하여 다시 청년회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교회의 일꾼을 키웠다. 이들이 각 주일학교에 교사로 활동하여 주일학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전도활동에서도 일선에서 봉사하여 왔다(충현 25년사 p.77).

1970년 1월부터 초대 부장에 이동규 장로, 지도에 허일찬 목사가 임명되어 43명이 모여 대학부로 독립하여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2회에걸쳐서 44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동안 역대 부장으로는 이동규, 김창배, 최석주, 홍중섭, 윤용규 장로와 지도에는 허일찬, 최경식, 송철호, 서택수, 정상우, 천성덕, 신성중, 정관일, 윤희철목사와 김남식 전도사가 수교하였고 부지도에는 김길자, 정훈식, 이준교, 김경성 전도사가 수교하였다.

대학부는 영아부로 부터 고등부 주일학교 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또는 그리

스도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주일학교 교육이 열매를 맺는 장소로서 4년간의 교과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는 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연장 교육하는 곳이며 해마다 100여명 정도의 새신자가 들어온다.그리고 매주 평균 150여명이 함께 모여서 면려회 활동과 함께 말씀을 배운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대학생들에게 맛도록 여러가지 행사를 해왔는데 교사회에서는 겨울수련회, 여름수련회, 주일 반별성경공부, 외부강사를 모시고 특강을 하고, 선입반이 운영되어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신앙기초를 세워준다.

그리고 면려회에서는 편집곡을 통하여 문서활동을 하고 명동전도 등 여러 전도팀들 혹은 성경공부 팀들이 있어 자신의 신앙성장을 위해 힘

쓰고 있다. 또 여름에는 여러대의 하기 봉사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1982년의 교육목표는,

1. 말씀을 배우는
2. 기도능한
3. 복음을 전파하는
4. 성령의 열매 맺는
5.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교사와 조장과 임원과 회원이 힘쓰고 있다.

집회는 주일 12시부터 강의와 면려회 활동과 찬양과 반별성경공부가 실시되고 있으며 다른 성경공부는 그룹별로 특성에 맞도록 평일날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학부 교역자로는 지도에 허충욱목사, 부지도에 성주진, 김정순전도사, 부장에 윤인현 집사, 부감에 김보일집사, 안춘진 집사외에 남교사8명, 여교사 6명, 조장 26명 아 함께 대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있다. **8월**



아이들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

정 인 선
(산업전도교육부)



오늘도 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
의 일하게 하심을 무엇으로 감사드
릴까요? 저의 호흡이 하나님 허락
지 않으시면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는
다면 제 생명이 헛될 수 밖에 없습
니다.

매마른 영혼 위에 내려주시던 생
명의 만나, 사랑의 노래를 전하고
싶습니다. 돌아난 가시 찌르는 아픔
에 간구하는 음성 외면치 않으시던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이곳에
왔습니다. 산전부로 와서 첫 주일
성경공부를 하던 날, 출석부에 올려
진 학생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채, 새가족반에서 동반한 학생 1명
과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무
안함과 당황했던 기억이 새롭습니
다. 성경공부를 하면서도 좀처럼 마
음문을 열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서
당신 앞에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하
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던 하나님!
갈수록 어려운 일이 학생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
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끄뜨리
십니다. 밀알 그대로 있으면 안될
것 같기에 갈아버리시려는 하나님
의 사랑 앞에 몸살을 앓고 말았습
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반 학생들
의 모습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
여 방황하던 처량한 제 모습을 하
나님은 아시리이다. 그 은혜 알면서
도 어리고 어리석기에 그 사랑 다
나누지 못한 슬픔으로 얼굴을 적시
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
해 얼마나 굶어 앉아 기도하는가?”

절책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 앞에 가
슴 속을 저미는 고통을 억누를 수
없었던 시간을 하나님은 아시리이
다. 전화약속, 엽서, 심방도 무색하
게 되어버린 주일날 오후에는 “나
는 외롭고 괴롭사오니”라고 탄식하
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이들은 오히
려 초라한 교사인 제게 믿음으로 격
려해 주었습니다. 야근을 하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철야기도를 하
고 싶어 달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
은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주는듯 합
니다. 둘러보아도 설 자리 없어 항
상 외롭기만 하던 아이들, 간구하는
음성에 눈물이 고입니다. 손끝시린
아픔과 무거워진 다리 가누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기에 여념이 없는 아
이들을 볼 때 저는 얼마나 사치스
런 열등의식과 고민을 가지고 방황
하였는지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
습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소원 털
어 놓을만한 사람 없는 아이들이 자
기의 이야기 들어줄 때면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손 한번 잡아주
면 그것이 그다지도 고마와 다음번
에 만날 때는 수줍어하며 가늘고 작
은 손 먼저 내밀던 소중한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가난한 마음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벽을 기다리
던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간절합
니다. “○○가 회사에서 아주 말썽
꾸러기였는데 교회에 나온 이후 완
전히 변했대요”라는 전도사님의 말
씀을 듣던 지난 주일에는 제 생명
이 존재하는 의미를 알 것 같았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뼈저

린 감격과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
을 힘껏 품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치기 쉬운 존재이기에 매일
매일 사랑과 따스한 정을 한없이 필
요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속
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
지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
하게 하옵소서. 제게 맡겨주신 아
이들이 금방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인내하
는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육신의 정에 이끌려 아이들
들 가르치는 일도 많으며,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열심을 내는 일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삶의 자리
감추시며, 1주일 내내 정결하지 못
하고 미진한 모습으로 서는 날 많
았지만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키워주심을 깨닫습니다.

아이들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
스도의 생명과 영적인 비밀을 사모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
을 바라보는 눈을 주옵소서. 아이
들 속에 깊이 묻힌 열등의식이 말
씀 안에서 감사와 찬양의 시로 변화
될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작은 일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
달라고 조르던 어리석음 가슴 가득
히 저러웁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다 헤아리지 못하나 가난한 촛불의
기도로 나를 태우소서. 어떤 모습
으로 변할지 모르는 인생이운데 묵
숨 다하기 까지 인내와 순종으로 좁
은 길 걸게 하옵소서.

□ 찬송가 감상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 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강 저편의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이 찬송은 금년 우리교회 성가대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골3:16)라는 표어 아래 정해졌던 주제 찬송이었다. 정말 씩씩하고도 경쾌한 아름다운 찬송이다. 찬송이야말로 가장 빠른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성도들은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기도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찬송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 그리고 슬픔의 늪 속에서도 위로받고 새 소망으로 힘을 얻는다.

이러한 찬송을 늘 높이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만을 늘 찬양하며 생활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찬송은 바로

이러한 삶을 체험한 윌슨(Carrie M. Wilson)이라는 분이 시를 썼고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살았던 스웨니(Tohn R. Sweney)란 사람이 곡을 붙였다. 이 두분에 대하여 그 이상은 알 길이 없다.

〈후렴〉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말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찬송은 4/4박자의 강조로 된 곡인데 조금 빠르게 부르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로서 아주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성가대 수양회에 참석한 성가대원들은 이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 아마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충성할 것을 다짐한 줄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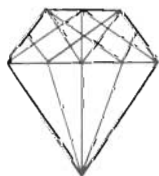
아무쯏록 이 찬송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언제나 기쁨으로 불러야 할 훌륭한 찬송이라고 생각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찬양과 함께 참 즐겁고 풍요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창업49년의 신용과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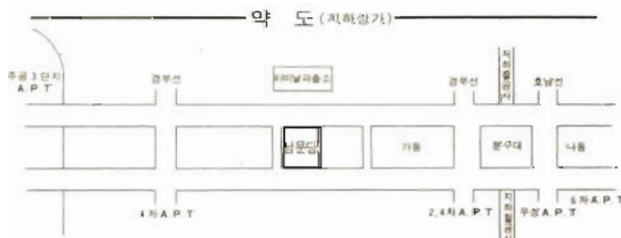
남 문 당 金正泰 집사



금 은 시 계

터미널 강남지하상가

599-3776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애굽—이준교 선교사

할렐루야! 지난 6월22일자로 카이로 한인교회가 에겔트정부 곧 내무성으로부터 외국인 교회로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으로 기독교의 전파를 금하고 제재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교회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정부방침을 놓고 볼때 너무나 놀라운 기적같은 사실이다. 애굽말로 불가능(MISMOMKIN)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한인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선교사님을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애굽정부의 노동성으로부터 받고 본격적인 선교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얻으신 것이다. 한인교회를 등록하고 '77년 6월부터 정식예배를 드리기 시작한후 만 5년만에 여섯번이상의 신청을 거절당하고 신분 자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얻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1. 애굽 교계 지도자들과의 애굽 선교 위한 지속적인 대담과 상의, 신학교와 농촌교회 지원금등 전달하고 학원선교 지원금도 전달.
2. 수단 복음주의 교회지도자 지크리자이드씨의 방문받고 수단교회 지도자위한 수양회 인도 청원 접수.
3. 미국 로스앤젤리스 평화 선교교회(황의영 목사 담임)가 애굽 선교 지원금 보내오심.
4. 애굽목사 하기수양회의 주장사 김창인 목사님 일행 접대 준비 및 관계 애굽교회 지도자들과의 업무연락등으로 바쁘신 중.

[기도 제목]

- ①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위해.
- ② 애굽 선교사역의 큰 열매위해.
- ③ 애굽 목사 하기수양회 큰 은

혜 넘치도록.

④ 무더운 계절에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위해.

●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현지 선교부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살로미타 전도단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의료선교사 1명 초청하여 종교성과 관계없이 후생성의 추천으로 체재 허가를 받아 활동하게 된다.

과목: 소아과, 내과 또는 외과

주재지: 자카르타

사역지: 자카르타 및 서부자바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사업 및 재정계획서, 여권사진등 각 2매, 영문번역 첨부.

기타: 주택 및 차량은 현지본부 지원.

[기도 제목]

- ① 의료선교사 헌신자의 임명과 파송에 차질없도록.
- ② 선교사님 내외분과 현지 선교본부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 위해.

● 일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본교회 선교부 청년부의 위로의 편지로 힘연하시고 구원파에 미혹되었던 자매가 선교사님의 기도와 충고 및 이 전해 간 그곳 목사님의 상담으로 사죄하고 전화를 오셔서 주님께 감사찬송.

1. 이권사님 부인 성경반, 히도오 교회, 히로이즈미 교회의 예배와 선교인도 등 순조로운 사역중 은혜충만.

2. 휴가관계로 7월31일 귀국중.

[기도 제목]

- ① 귀국중이신 선교사님 내외분과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
- ② 히로오교회와 히로이즈미교회의 안정과 선교열매의 풍성과 계속적인 보존.

● 벨기에—김성완 선교사

한달동안 자동차 주행거리5,000킬로미터에 이르는 선교여행과 활동속에 매우 분망하시다. 벨기에에는 물론 북부 불란서 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역의 교로 상사직원, 군인가족, 유학생을 순회하며 답사 방문함. 대사관 협조로 벨기에 주재한인주소를 입수하고 약160명에 이르는 70여 가정에 한인교회 안내장 및 전도지를 배포코자 준비하고 있음.

1. 계획했던대로 목사님 사택과 박병채 의학박사 가정에서 성경공부를 브뤼셀과 류벤에서 시작,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 불신자도 회원가입하고 배우며 친교활동도 겸해 이루어지고 있음.

2. 지훈군 기브스를 메었으나 약간 절고 있음.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성도들의 기도감사,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의 국민학교에 지만군은 5학년, 지훈군은 2학년에 등록.

3. 자동차 성능문제는 해결됨.
4. 비스바덴 평신도수양회에 10명 정도의 성도 참석예정.

[기도 제목]

- ① 한인교회 부흥 확장
- ② 선교의 기초공사 역할할 유학생 기숙사의 신속한 운영.
- ③ 한국교아 위한 선교활동의 문

크게 열어주시도록.

④ 국제결혼한 가족위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열매위해.

⑤ 유럽공동체 본부, 나토본부, 형식 출입 및 지하선교단체들과의 협력선교의 문 열리도록.

⑥ 언어교육, 교민사회 참여, 선교활동의 발 목이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 형통하도록.

● 알헨티나—백 성룡 선교사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과 가족의 평안과 건강.

② 한인교회와 교포사회의 안정과 발전위해.

● 호주—김태현 선교사

선원선교와 교우 심방 및 호주선교의 여러가지 가능성 타진하시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어교육받고 계심. 연말쯤 홍콩 경유 귀국 예정.

[기도 계획]

①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의 건강과 안정.

② 호주선교위한 더 큰 비전과 전도의 문 열어주시도록.

● 홍콩—이만렬·염영택 선교사

[기도 제목]

① 홍콩 선교부의 조속한 안정과 발전위해.

② 마카오 개척교회의 부흥과 의료선교의 발전.

③ 선교사님들과 가족의 건강과 생령충만 더욱 넘치도록.

● 서독—육호기 선교사

각 교회별로 약화예배를 드렸는데 빅츠브룩교회는 미국인과 결혼한 가정이 많이 참여하여 가족 구원역사에 큰 전진이 있었고 비스바덴 교회에도 불신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다.

1. 제6회 평신도 수양회가 당회장님 인도로 7월20일부터 있었는데 참가신청자가 대거 늘어나는 바람에 숙소예약과 접대에 동분서주하시고 국내에서 서수남, 김희자씨도

초청하였다.

2. 할레루야! 장년 대예배 출석 인원70명을 목표로 3년간 기도해오던 비스바덴 교회는 이번에 목표달성하고 100명으로 다음단계의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특히 독일인을 위한 전도지와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협의를 하고있다.

3. 벨기에 한인교회의 김성완선교사님과 유철환집사의 내방받고 환담, 앞으로의 선교협력 의논하심.

4. 비스바덴 교회의 차범근 집사는 독일 TV방송 “스포츠와 신앙” 순서에 나가서 비스바덴 교회소개와 한국교회의 역사 및 부흥상을 설명하고 우리말 찬송가를 신앙간증과 함께 방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렸습니다.

[기도 제목]

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과 안정.

② 선교수양관 구입의 행동

③ 현지 독일인 및 미국인 가족의 전도의 문 확장과 발전.

④ 세 한인교회의 안정과 더욱 부흥위해.

●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블리비아의 남미 연합교회 부흥회와 한국—파라과이 수교 제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6월26일부터 29일까지 당회장님 모시고 특별성회를 진행하고 큰 은혜 가운데 선교헌금 및 건축헌금을 해오심.

[기도 제목]

① 교회안정과 부흥

② 교포사회의 경제 회복과 부흥.

③ 가족들 건강과 자녀학업.

● 칠레—유재일 선교사

6월16일부터 23일까지 제직수련회와 심령부흥회를 당회장님을 모시고 가졌으며 칠레 장로교 총회 안사들과 현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장래 선교방향과 정책을 위한 유익한 대화를 나누심.

1. 7월4일부터 새성전부지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동시에 현

지 교역자를 모시고 칠레인을 위한 예배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2. 이상기후와 계속적인 장마로 수재민이 다수 발생하여 구제위한 의연금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3. 미니뵽스를 구입하여 기동력 있는 선교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① 한인교회의 안정과 발전.

② 칠레선교의 큰 문 더욱 열리고 현지인 선교에 풍성한 열매위해.

○ 서독—박용삼 평신도 선교사

할렐루야! 지난 7월 16일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만 5년반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논문을 모교회에 헌정하셨으며 이제 장래에 선교를 위해쓰임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기도 제목]

① 만5년반여의 고난과 훈련속에 지켜주시고 영광의 학위 얻게 하라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송.

②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과 장래 선교위한 사역에 좋은 길 열리도록.

● 본부소식

① 본교회의 선교비전과 정책 및 전략수립을 위한 선교실행위 선교세미나가 8월23일과 24일 양일간 1박2일코스로 불광동 수향관에서 있었습니다.

② 동서선교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하기산교대한학회 선교화 지도교역자인 오치용 목사님과 루지도. 유국남강도사 참석예정.

③ 김영희 목사님 나성지역교회와 협력하시는 가운데 집회일도, 설교, 한국교회 소식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6월19일에는 현지 세종회관의 나성교우 모임에 참석하시고 소식 전해오심. 중환 새정전 건축헌금을 김기철 장로님이 보고하시고 특별헌금 순서도 가졌다하며 예배 인도하는 조철일 목사님이 탐당. (29)

일본의 역사왜곡사건

— 최성원총회장 성명 발표 —

총회는 일본의 검인정 역사왜곡사건에 대하여 총회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에 의하면 「일본 군국주의의 한 피해자였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산하 3천8백교회는 통분을 금치 못하며, 일본의 역사왜곡의 저의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려다가 50여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수많은 수진성도(守眞聖徒)들이 5~7년씩 옥중에서 고통을 겪었으며, 교회의 종까지도 몰수 당하고, 찬송과 성경을 폐기시키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일본은 역사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역사왜곡을 시정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촉구한다.」

선교협의회 개최

— 선교효과 극대화 모색과 선교사 양성논의 —

총회선교부(부장 최동진목사)는 해외선교의 효율적 활동을 실현키 위해 지난 8월8일 선교협의회를 열어 선교사 양성토의 및 선교효과 극대화 모색에 주력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선교부 관계자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대표 40여명이 참석 각지역 파송 선교사들의 활동보고를 청취함과 동시에 선교활동 보고서를 종합하여 각교회에 보내기로 했다.

또 선교사 양성을 철저히 하여 해외선교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교요원 훈련 양성책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한편 이날 필리핀선교 후원회 총회를 열어 임원을 조직했다.

회장 안중섭목사, 부회장 김성규, 정양수목사, 총무 배태준장로.

한국 CBMC 9차 전국대회

—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도 가져 —

한국기독교실업인회(회장 서정환)는 8월 26~28일까지 설악파크호텔과 뉴 설악호텔에서 제9차 전국대회를 겸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성숙한 청지기의 삶」을 주제로 모인 등 대회에서는 미국 NY, LA지회등 2개 해외지회와 47개 국내지회에서 6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동 대회에서는 한국 기독교실업인회 이념과 운동사를 점검했으며, 교육과 훈련에 따른 자세정립의 시간도 가졌다.

김경재교수의 주제강연이 있었고, 성경공부와 특강, 그리고 회원 친교의 시간으로 비즈니스 세계에 주님을 모시는 일에 마음을 같이했다.

전국여전 47차총회

— 회장에 김숙애권사 선출 —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가 지난 8월 3~6일까지 총신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되어 임기만료된 임원진을 개편 2년 임기의 새회장엔 김숙애권사(대구동부교회 소속)를 선출했다.

전국 44개 지회에서 556명의 총대가 참석한 동 총회에서는 박일용목사(승동교회 시무)를 주강사로 맡은의 은혜를 받고 회무를 처리했다.

국내외전도와 병원·군대·문서선교에 힘을 집약시킬 동 총회의 새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숙애, 부회장 김옥배, 박순혜, 서기 오문희, 손종옥, 김성애, 회계 황인정, 박정희, 이이래

전국 남전도회 전도대회

— 해운대서 세미나도 갖고 —

전국남전도회 연합회(회장 박병기장로)는 지난 7월27일 신부산교회당에서 전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동 전도대회에서는 이영수목사(신부산교회 시무)의 전도설교를 듣고, 전도세미나및 해변전도로 복음을 전했다.

8.15광복 감사기도회

— 한보청협주관으로 —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청장년협의회(회장 김진호장로)는 지난 8월11일 오후8시 남서울 중앙교회당에서 8.15광복 3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6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동 예배에서는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결의문 채택도 있었다.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수욕 더욱 그리하자”(히 10:24, 25)

7월의 새 교우

● 1 지구

썸문 1 구역 김인숙
월곡 3 구역 윤성진
월계 3 구역 박정만
미아 3 구역 김돈영
미아 2 구역 조용재
상계 1 구역 김치원
상계 2 구역 이기훈
수유 2 구역 고두석
수유 3 구역 한택인
월계 3 구역 김창국
용두 3 구역 심정희
창동 3 구역 임정웅
우이 3 구역 정민자
창위 1 구역 이영진
길음 3 구역 강순주
창문 2 구역 백석기
상계 1 구역 김옥순
창위 1 구역 여석균
용두 3 구역 가영숙
길음 3 구역 최인수
미아 2 구역 안남규

● 2 지구

돈촌 1, 3 구역 최명진
석판 2 구역 정봉애
창안 A 구역 강희창
황학 구역 이창세
황학 구역 윤원한
전농 구역 조규형
상봉 구역 김종록
망우 1 구역 윤상준
망우 1 구역 김기원
암사 구역 김성근
휘경 구역 김형남

면목 4 구역 양분자
답십리 2 구역 김정녀

● 3 지구

시영 3 구역 유은옥
잠실 3 구역 박현석
가락 구역 이동애
잠실 1, 3 구역 김광호
성수 1 구역 정재환
성림 4 구역 정문미
성수 2 구역 김기용
잠실 2 구역 이용철
왕십리 구역 박팔용
정충 1 구역 허유성

● 4 지구

천당 2 구역 남소하
논현 2 구역 박창식
한남 2 구역 박재호
성남 1 구역 안영일
목수 2 구역 김영순
금호 4 구역 박성재
무지개 구역 정승준
천당 3 구역 이광국
선정 1 구역 김길화
강남 구역 정성운
선정 2 구역 최해천
논현 2 구역 이종훈
한남 1 구역 이경아
목수 2 구역 강양원

● 5 지구

회현 구역 강용원
팔동 1 구역 김창영
남대문 구역 권애순

시흥 구역 양현
반포 2 구역 강인수
흑석 구역 이호영
대방 1 구역 백남산

● 6 지구

공항 2 구역 박상식
용문 구역 김양자
청파 구역 이덕순
인현 3 구역 전덕봉
인현 3 구역 김홍기
신월 구역 정운호
진양 2 구역 김수동
연희 1 구역 형인광
개봉 구역 심성용

● 7 지구

오장 1 구역 김병기
율지 3 구역 최명자
홍제 구역 유형섭
서대문 구역 김경호
창신 1 구역 박채규
창신 3 구역 정재현
가회 구역 김진태
홍은 2 구역 최동용
초동 2 구역 이정숙
가회 구역 박해권
연지 구역 김순일
충신 구역 안재섭
오장 1 구역 신승애
오장 2 구역 이봉운
송인 1 구역 이택식
약수 1 구역 김의진

결혼

- 김정수군(양배구역)과 진경자양(미아4구역) 12일
- 김철원군(김희보옥사장님) 17일
- 박상식군(등촌구역)과 최진숙양(본교회직원) 17일
- 이승득군(염리1구역) 17일
- 박성식군(허다정씨 아들)과 정점숙양(이육기집사 딸) 8월5일
- 이경자양(이득선씨 딸,

유치부 성가 지휘자) 8월7일

별세

- 오신택선생(오석부집사 김순이권사 장남) 13일
- 송흥덕씨(신당4구역) 12일
- 유순희집사(이남성집사 부인) 21일
- 권혁수씨(옥수2구역) 1일
- 박덕일씨(가락구역) 31일
- 한삼열씨(신월구역 한영준선생 부친) 8월2일

이민

장기옥(봉천구역) 캐나다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채산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채산자부는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채산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채산자 2부에 개체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채산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장년채산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채산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교회소식



김창인 목사 귀국

— 해외순회 전도여행 마치고

지난 5월25일 해외선교지 순방및 전도집회 인도차 출국한 바 있는 본 교회 당회장 김 창인 목사가 지난 8월18일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KAL기편으로 귀국했다. 김목사는 미국을 비롯 캐나다, 브라질, 파라과이, 알헨티나, 칠레, 서독, 이집트 등지에서 집회를 인도했다.

교회성장 세미나 성료

제2회교회 성장 세미나가 지난 8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개최됐다. 본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등 1백여명이 참석한 동 세미나의 강사로는 박선희, 김홍도, 이호문, 김선도목사 등이 나왔다.

20년근속자 표창

당회는 교회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20년 강가근속자 11명을 선정 표창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다음은 그 명단.

장로 김경철 조선근 노광현
권사 문정애 신근자 박석순
김선복 지중봉 민원옥
김영남 방재운

농촌 무료진료 실시

산업전도회 의료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는 영혼을, 그리고 의학으로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는 가운데 금번 남전도회 주최로 장락교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진료에는 피부과, 치과, 내과, 한방과 등 다양한 진료를 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전도특공대 하기훈련

제2차 전도특공대 하기훈련이 지난 7월19일~24일, 북한선교훈련원에서 개최됐다.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는 주제 아래 총 343명(충현교회=184명, 지방교회=159명)이 참석한 동훈련에는 장정일 목사, 이세환 목사, 박명하(귀순용사), 임경섭 장로, 조준상 목사, 김오용 전도사 등이 강사로 수고했다.

군중훈련 실시

전도위원회 특수분과에서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방 〇〇사단에서 군복음화를 위한 군중훈련을 실시했다. 약 80명의 장병이 참석한 동 훈련의 강사로는 장정일 목사, 박동실 목사, 이양우 강도사, 안석렬 강도사 등이 수고했다.

연합 수양회 개최

권사회, 제1여전도회 그리고 제2여전도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하기 수양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다. 회원 200명이 참석한 동 수양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 아래 조준상 목사가 강사로 많은 은혜를 나누었다.

계절학교(여름) 성료

◇ 청년부

지난 7월14일부터 17일까지 “사랑하라”는 주제 아래 오치용 목사를 강사로 충현기도원에서 개최했다.

◇ 대학부

“기본신앙생활훈련”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이승근 목사를 강사로 충현기도원에서 개최.

◇ 어새부, 유초등부

7월19일부터 22일까지 본당에서 어새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기뻐하자” <강사: 김양래, 이진희> 주제로 열렸는데 어린이 164명, 교사 32명 등 196명이 참석했고, 유년부는 “고마우신 예수님” <강사: 김현이, 안석렬> 주제로 열려 어린이 386명, 교사 85명 등 471명이 참석. 초등부는 “고마우신 성령님” 주제 <강사: 이양우, 김익경>로 열려 어린이 351명, 교사 75명 등 426명이 참석하여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었다.

◇ 중등부

7월26일부터 29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 주제로 김창근 목사를 강사로 학생 299명, 교사 46명 등 348명이 참석하여 수양회 개최.

◇ 고등부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가자” 주제로 지난 8월2일부터 5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수양회를 개최했다. <참석인원: 학생 209명, 교사 32명 등 241명>

◇ 선교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자”라는 주제로 지난 8월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소재, 제2여전도회 지교회인 재인교회에서 오치용 목사, 유국남 강도사, 리차드 길 선교사를 강사로 선교수양회를 개최.

◇ 유치부

“고마우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지난 8월9일부터 11일까지 본당에서 조준상 목사를 강사로 개최했다.

◇ 장년부

“말씀을 생활화 하자” 주제로 조

3월 목사를 강사로 충현기도원에
개최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
다.

◇ 영아부

지난 8월17일 부터 18일 까지“사
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주제로 오
용 목사를 강사로 은혜충만 했는
유년부실이 좁을 정도로 많은 아
들과 부모들이 참석하여 본당에
집회를 가졌는데 본당이 꽉 차
는 인원이 참석,

◇ 노년부

끝으로 지난 8월23일 부터 24일
까지 양일간 장정일 목사 강사로 충
현기도원에서 은혜 충만.

□ 인사이동

1. 예배위원회

① 임 명
제1성가대 김석준 테너
유경미 소프라노
제3성가대 강호원 베이스
김치원 베이스

② 퇴 임

제3성가대 이청미 소프라노
이혜봉 소프라노
김중국 베이스

2. 교육위원회

① 임 명
유치부 김영자(여) 임시교사
유년부 유금순(여) 정교사
조옥환(여) 임시
중등부 이인숙(여) 임시
② 퇴 임
유치부 한정은(여)
유년부 임순화(여)
김순남(여)
중등부 문옥희(여)
산교부 오신태(남)

□ 토막 소식

◇ 평신도 선교사로 서독에서 수
교하시는 박용삼 집사가 5년여의
각고 끝에 마침내 지난 7월16일 철
학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박집사는
지난 18일, 당회장 김창인 목사와
동행하여 업무차 일시 귀국했다.

◇ 주일학교 선교부가 주최하는
8월 정기 철야기도회가 지난 18일
(수) 오후11시 새성전 예배실에서
개최되었다.

◇ 성경연구원에서는 9월6일부터
개강되는 「전교인 성경공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촉구
하고 있다. 이번 성경공부에는 카
세트 테이프 통신강좌도 마련되어
있는데 수강신청은 8월31일까지 이
다.

◇ 교회는 전세교인들이 참석하
여 드리게 되는 전체 철야기도회를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 본당에서
개최했다.

◇ 북한선교철야기도회가 지난 8
월18일 오후 10시30분 본교회 유년
부실에서 열렸다. 조준상 목사의 인
도로 진행된 동 기도회는 1부 다니
엘서 강해, 2부 귀순용사 박명하
(여)씨의 간증, 3부 철야기도회 순
으로 진행되었다.

교회소식



◇ 본교회 전화번호 변경안내 (8월19일부)

변경전 번호	변경후 번호
260-3407-8	→ 274-2171~2
265-4271	→ 274-2173
267-9738	→ 274-2174
267-9937	→ 274-2175
267-9263	→ 274-2176
269-7726	→ 274-2177

각 종 통 계

8월1일
(매월첫주기준)

구 분		남	여	계		
예	I 부	209	403	612	총	세
	II 부	431	1,086	1,517		
	III 부	387	654	1,041		
	IV 부	176	391	567		
	V 부	181	421	602		
배	주 일 저 녁	214	538	752	교인	남
	삼 일 저 녁	140	281	421		여
	어린이새신자부	37	48	85		계
	영 아 부	224	175	399	총수	남
	유 치 부	130	146	276		여
	유 년 부	196	204	400		계
	초 등 부	194	187	381	신	남
	중 등 부	187	176	363		여
	고 등 부	125	155	280		계
	대 학 부	83	87	170	입	남
	청 년 부	64	92	156		여
	장 새 부 I	50	113	163		계
	장 새 부 II	51	107	158	교	남
	장 년 부	22	261	283		여
	노 년 부	44	116	160		계
학	산 업 교 육 부	27	93	120	원	남
	선 교 부	14	44	58		여
	새 가 정 부	17	29	46		계
	합	3,203	5,807	9,010	교인	남
						여
						계

9 월의 행사

◇ 교 회

3 일/전체철야기도회
/정기당회
5 일/교회설립29주년 기념예
배/20년근속자 표창및
감사패 전달

◇ 전도위원회

1 일/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및 월례회
12 일/남전도회 월례회
19 일/여전도회 월례회 해외
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6 일/전도위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12 일/계절학교 종합평가
26 일/정기월례회

◇ 심방위원회

5 일/제직회
12 일/권사회 월례회
19 일/심방위원회 월례회
26 일/구역권찰회의

◇ 건축위원회

26 일/정기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19 일/정기월례회

◇ 재정위원회

5 · 19 일/정기월례회

◇ 출판국

5 일/출판국 월례회
/월간 충현 9월호
발간

편집후기

◇9월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불벌 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이고 기다리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와 수양회 그리고 하기전도의 그 화려했던 열기들을 نن즈시 식히고, 이제는 지난 여름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남은 이 한해를 보람있게 보냄으로써 많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새성전건축은 우리 교회 5대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면 지상과제인 이 일을 위하여 온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사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결과는 건축현금에 차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성전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에 교회설립29주년을 맞이하면서 새성전건축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하여 귀한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옵고, 이 좌담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자성이 있어졌으면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새성전건축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 지리라 확신합니다.

충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조현명

편집위원/

김 하 진	조 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종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9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8호

통권 제102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9월 1일 인쇄

1982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편집부장/장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1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5

전화/274-2171·2172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82년도 맥추감사절 예배모습



◇ 82년도 임시교사 특별훈련반 수료자 일동 기념촬영



◇ 제5회 전사회및 제1, 제2여전도회 하계수양회 모습



◇ 북한선교훈련원 앞에서 도강훈련을 하는 북한선교회원 모습



◇ 82년도 여름계절학교가 막을 내렸다. 사진은 초등부 기간 중 특기자랑대회에서 존극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 수도노회 주교연합회 주최 성경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유년부 어린이가 상을 받는 모습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 16 : 9)

이 책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